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Diana Park, Inc.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한류 담은 USB, 북한 주민 마음 바꾼다

북한인권 개선,
내부의 인식 변화가 필수
한국 드라마나 영화,
북한 청년들에게 탈북 희망
심어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만 원어치의 식량은 북한 주민들의 굶주린 배를 몇 기 달랠 수 있겠지만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담긴 만 원짜리 USB(이동식 디스크)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과 삶의 태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북한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다 2004년 탈북한 박세준 씨의 말이다. 박 씨는 현재 탈북청년단체인 ‘우리하나(Woorihana)’의 대표로 USB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담아 북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작은 사이즈로 북한 주민들이 숨기거나 몰래 가지고 다니기에 적합한 USB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지난 24일 하버드 스퀘어 한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북한 출신' 김은주 씨(왼쪽)와 정광성 씨

한류의 유일한 통로다. 남한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평생 받는 북한 청년들에게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그야말로 신세계다. 현실과는 전혀 다른 화면 속의 공간에 가고 싶다는 열망이 많은 북한 청년들의 주된 탈북 계기다.

지난 24일 미주 대학 컨퍼런스 차

보스톤을 방문한 탈북자 세 명, 박세준, 김은주, 정광성 씨를 만나 그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하버드 스퀘어 앞 오봉팡(Au Bon Pain)에서 만난 이들은 겉모습부터 말투, 소탈한 웃음까지 여느 한국인과 다를 것 없었다. 단, 그들은 자유와 권리를 위해

▶▶3면으로 계속

한인 주최 행사에 1천여명 운집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역사박물관
개관식 개최
창조과학 유산과 역사 알리는
계기 되고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내 단일 기관 주최 행사로는 좀처럼 기록하기 어려운 1천여명이 모인 한인 행사가 열려 화제다. 지금껏 이보다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한인회장 선거 정도밖에 없었다

개교 40주년을 맞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이사장 윤경숙, 학부모회장 이현주)가 지난 21일 개최한 ‘역사박물관 개관 및 문화체험관 행사’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 외부 참가자 1천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남일교장은 “한국의 유구한 역

사와 우수한 창조과학 유산을 알리고 자랑하기 위해 역사박물관 및 문화체험관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축사와 테이프 커팅식으로 막을 올린 이날 행사의 참석자들은 개관 행사 후 제 1박물관(신라부터 발해)과 제 2박물관(고려부터 현대)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특별히 이광석 영사와 김은한, 이충시 박사가 이날 행사에 참석해 한국 역사와 유물에 관한 설명을 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문화체험관 중 하나인 세배방에서는 한인 2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딸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찾아왔다는 한 미국인 참석자는 “한국 문화와 역사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박물관을 둘러보며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어 한 참가

▶▶4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미국과 인천공항의 왕복편은 지정된 항공사의 티켓입니다.
*도쿄 내 호텔, 이코노미 호텔 기준.
*예약상황과 좌석상황에 따라 프로모션 가격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japantravelinfo.com

IACE TRAVEL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Korean Line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NEWSTAR Realty of Boston
에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EXCLUSIVE LISTINGS

- 일식당: 매상 \$600k+, Beer & Wine License 포함, 고정적인 수입, 보스톤 인근, Asking: \$250,000
- 일식당: 매상 \$800k+, Beer & Wine License 포함, 많은 유동인구, 좋은 위치, 보스톤 인근, Asking: \$500,000
- 단독건물 식당: Business only, Peabody위치, 150+석, Full liquor, 50+파킹, Asking: \$250,000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MORTGAGE MASTER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loanDepot.com, LLC d/b/a Mortgage Master, 102 Elm Street, Walpole, MA 02081, Telephone 508-850-4100, Fax 508-850-4200. All rights reserved. NMLS ID #174457 (www.nmlsconsumeraccess.org) Massachusetts Mortgage Lender/Broker License MC174457

북한인권 실상 알리는 하버드 탈북자 간담회 열려

USB에 한국 드라마 담아
북한으로 보내
약 100여명의 하버드 학생들 참석
실질적인 인권 개선 대안 제시
어려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하버드 학생회 HRiNK와 탈북 청년단체인 우리하나(Woorihana)가 공동기획한 탈북자 간담회가 지난 24일 화요일 하버드 보일스턴 홀 틱노라운지(Ticknor Lounge)에서 개최됐다.

100여명의 하버드 학생들이 모인 이날 행사에는 2006년에 모친과 여동생과 함께 탈북해 회고록 '열한 살의 유서'를 쓴 김은주 씨와 2006년에 탈북해 현재 서강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있는 정광성 씨, 북한에서 치과의사로 일하다 2004년에 탈북해 최근 연세대에서 북한학 관련 박사과정을 시작한 박세준 씨(우리하나 대표)가 참석했다.

행사의 1부에서는 김은주 씨와 정광성 씨가 탈북의 경험에 대해 나누며 북한 인권의 실상에 대해 나눴다. 박세준 씨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우

리하나의 활동을 소개하며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담은 USB 보급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탈북자 박세준 씨는 “식량난에 시달리는 물질적인 빈곤과 정보가 통제되는 정신적인 빈곤이 있다”며 “최근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결심하는 계기는 후자인 경우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청년들이 숨어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탈북의 꿈을 키운다는 것이다.

박 씨는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북한 학생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져 하버드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다.

이어진 2부에는 질의응답과 네트워킹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참석한 학생들은 북한의 의료수준, 탈북 직후의 생활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탈북자들은 반대로 북한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고 가장 미국을 잘 표현하는 드라마나 방송을 추천받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하버드 학생회 측에서 준비한 잡채 등의 한식을 즐기며 김은주 씨가 진행하는 '북한떡 만들기' 순서를 통해 탈북자들과 좀 더 친밀하게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을 가



하버드 학생회 HRiNK와 탈북청년단체 우리하나가 공동기획한 탈북자 간담회가 지난 24일 하버드 대학에서 열려 100여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졌다. 특별히 북한 아이들이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 일년에 두 번 받는 사탕이 등장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버드 2학년에 재학 중인 최미도 학생은 “한국에서 공부했을 때에는 스스로가 부끄러울 정도로 북한이나 탈북자들에 대해 무관심했다”며 “(오늘 같은 행사를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하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많은 외국인 학생들은 일종의 호기심으로 북한과 탈북의 경험에 대한 막연한 질문을 던졌을 뿐,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현재 미주 대학 순회 컨퍼런스 중인 우리하나 탈북청년단체로 USB 전달, 탈북자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단체다. 지난 23부터 24일 이틀간 방문한

보스톤에서는 하버드와 터프츠, 보스톤 대학 학생들과 컨퍼런스를 가졌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HRiNK(Human Right in North Korea)는 하버드 학생 단체로 북한의 인권에 대해 알리기 위한 취지로 2007년 설립되었다. 현재 하버드 한인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북한 관련 이벤트를 개최한다.

dyoo9146@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고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론 펌	Iron Perm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떠한 국제적인 압력도 정작 북한 사람들의 사고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1면에 이어서

두만강을 건넌고 이처럼 생사를 담보로 한 경험은 그들만의 것이다.

정광성 씨(27)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탈북의 꿈을 키웠다. “북한에서 가르치는 남한의 이미지는 험벗고 우리가 도움을 줘야만 하는 나라였다”는 정 씨는 “드라마 속 남한은 그야말로 신세계였고, 내가 속았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갖게 해줬다”며 탈북의 계기를 전했다. 정 씨는 “드라마 <울인>에 빠져 꼭 제주도에 가보고 배우 송혜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탈북을 결심했다”고 전하며 씩스러운 듯 웃었다. 2006년 부모님이 지불한 브로커를 통해 탈북한 정 씨는 현재 서강대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며 텍사스에서 어학연수 중이다.

‘열한 살의 유서’의 저자 김은주 씨(30)는 견딜 수 없는 식량난으로 탈북한 경우다.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제삿상에서 음식을 훔쳐 먹던 아버지의 친구를 보며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얼음장 같은 두만강을 건넜다. 중국에서 접시를 닦으며 새 삶을 시작한 김 씨와 어머니는 2006년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고, 서강대 교육학과를 공부하며 현재는 대학원 과정을 준비



회고록 '열한 살의 유서'의 저자 김은주 씨

하고 있다.

박세준 씨는 “의사였다고 소개하면 흔히 ‘먹고 살만 할텐데 왜 탈북을 했지’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의사여서 더 나은 건 없었다. 배급제도가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에서 의사의 아이들은 늘 굶어야 했다”며 북한의 제도를 비판했다.

미주 대학들을 방문하며 북한 인권의 실상에 대해 알리고 있는 이들은

“한국인이나 외국인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지만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짧은 여행을 통해 북한의 단면만 보며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친 탈북자들은 한없이 답답하

기만 하다. “권리라는 개념조차 알지 못했다”는 정광성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

도 때도 없이 공사장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14살에 7살이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왜소했던 김은주 씨도 초등학교 2학년 때 2미터가 넘는 옥수수밭에서 몇 시간씩 맨 손으로 풀을 뽑아야 해야 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심지어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도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군인들을 위해 토끼 가죽이나 비료 몇 구루마씩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이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이들은 한결같이 내부의 인식 변화를 꼽았다. “어떠한 국제적인 압력도 정작 북한 사람들의 사고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박세준 씨는 이러한 이유로 USB 전달 프로젝트를 더욱 강조한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스스로 눈을 뜨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과 터프츠, 보스턴 대학을 방문한 우리하나 탈북청년단체는 보스턴의 일정을 마치고 25일 예일 대학을 거쳐 컬럼비아, 조지타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북한 인권 관련 컨퍼런스를 가질 예정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3월 8일 새벽 2시가 3시로, 서머 타임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데이라이트 세이빙이라고도 불리는 서머 타임(일광절약시간)이 오는 3월 8일 새벽 2시(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10일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이에 따라 8일 새벽 2시는 3시가 되며 한국과의 시차는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1시간 줄어든다.

핸드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는 시간이 자동으로 바뀌지만 아날로그 시계는 수동으로 세팅해야 한다. 3월 8일 잠들기 전에 1시간 후로 맞춰 놓는 것을 권장한다.

이 시기에 여행 스케줄을 잡을 경우 비행기나 버스의 도착시간을 반드시 체크해야 착오가 없다. 또한 인도애나 주의 일부와 아리조나 주, 하와이 주는 서머타임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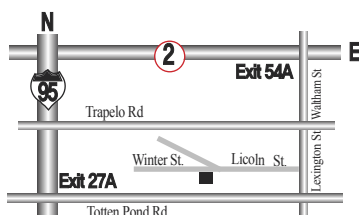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SAT Plus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개교 40주년 맞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한국문화 알리기 나서

▶▶1면에 이어서

가족은 “한국의 역사자료를 이렇게 많이 수집하고 전시하여 아이들이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하다” 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스턴 총영사관 이광석 영사, 한선우 보스턴 한인회장, 김성혁 민주평통 회장, 이경해 시민협 회장, 한순용 NAKS-NE회장, 오인식 이사, 이충시 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이사장, 보스턴합창단 장수인 단장 등 여러 한인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김은한, 김기석 전 이사장, 박신영 이사, 배한원 이은경 전임 교사 등의 학교 관계자들은 물론 뉴튼 시 시장과 도서관장,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역사박물관 개관 및 문화체험관 행사의 자료들을 뉴잉글랜드 지역 뿐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순회전시될 예정이다. 4월 4일에 개최되는 제 2회 독도사랑대회 및 역사골든벨 행사와 졸업식, 재미한국학교 NE협의회 주최 사은회와 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에서 역사박물관이 소개될 예정이다.

순회전시에 관심 있는 단체는 남일교장 (508-523-5389, ksneusa@verizon.net)에게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21일 열린 역사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한 한인 단체장 및 초청 손님들



역사박물관 개관식에서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역사적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는 역사박물관

보스턴코리아
BOSTONKOREA.com

문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턴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 Um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 회원사 | 세한연 |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하버드, MIT 비즈니스 스쿨 주최의 클럽 파티가 보스턴 소재 에스테이트(Estate)에서 열린다

하버드, MIT 비즈니스 스쿨 주최 클럽 파티 열린다

보스턴 지역 아시안 대학원생 및 전문인 환영
자연스럽고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유다인 기자 = 보스턴 아시안들의 네트워킹과 사고가 동시에 이뤄지는 클럽 파티가 오는 3월 7일 토요일 보스턴 소재 에스테이트(Estate)에서 열린다.

하버드와 MIT 비즈니스 스쿨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이벤트는 매 학기마다 열리는 정기 파티로 이번이 여섯 번째다. 무엇보다 이번 파티는 7일 열리는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와 8일 열리는 한인 창업토크 참석자들과 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더할 예정으로 기획되었다.

MIT 아시아 비즈니스 클럽의 백승민 씨는 “자연스럽고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며 “보스턴 지역 아시안 대학원생이나 전문인뿐 아니라 외국인이나 학부생들도 누구든 환영”이라고 전했다.

행사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3월 1일까지 티켓을 할인된 가격(\$15)에 구입할 수 있으며 다음 링크(bostonasianparty.eventbrite.com)를 통해 결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events/715108031-936479)에서 찾을 수 있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3월 7일 토요일 밤 10시
장소: 에스테이트 보스턴(Estate Boston, 1 Boylston Place, Boston, MA 02116)

dyoo9146@bostonkorea.com

3월 첫째 주, 비즈니스 및 창업 컨퍼런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유다인 기자 = 보스턴의 3월 첫째 주는 각종 비즈니스 컨퍼런스 및 창업 행사로 풍성하다. MIT 경영대학원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와 한인 창업토크가 3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성공한 창업 사례를 직접 듣고 창업자들로부터 조언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보스턴 지역 학생 및 직장인들 누구나 등록 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

일시: 2015년 3월 7일 토요일 오전 8시~오후 7시

장소: MIT 미디어 랩(Media Lab, 75 Amherst St., Cambridge, MA 02139)

화려한 초청연사의 라인업을 구축한 “아시아 비즈니스 낱알히 파헤치다(Demystifying Business Practice in Asia)”가 기술, 창업, 금융, 제조에 관심있는 보스턴 지역 학생 및 직장인들을 위해 개최된다.

이날 패널의 초청 연사로는 전 라이코스 대표 임정욱,페이팔 미디어 네트워크 최고운영책임자인 데이

비드 장, SK텔레콤 벤처 파트너 데이비드 리, 타이어(Giti Tire) 회장 엔키 탄, 스파크랩스(SparkLabs) 공동 창업자 프랭크 미헨 등이 있다.

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이날 행사는 다음 링크(mitabconference.eventbrite.com)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mitasiabusinessconference.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인 창업토크

일시: 2015년 3월 8일 일요일 오후 5시~9시

장소: TBD, MIT 슬로언 경영대

학원(50 Memorial Dr. Cambridge, MA 02142)

한인 창업자들의 경험담과 실속 있는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창업토크 행사로 K큐브(K Cube)의 임지훈 대표(Jimmy Rim)와 SK 텔레콤 벤처스 파트너의 K스타트업의 공동 대표인 데이비드 리, 웰드레스드(Well Dressed)의 대표 토드 샘플(Todd Sample)이 연사로 참석한다.

참석 인원이 100명으로 제한된 이날 창업토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음 링크(koreaetalk.eventbrite.com)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dyoo9146@bostonkorea.com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오는 3월 7일 토요일 MIT에서 열릴 예정이다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턴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야외 스케이트장에서 늦겨울 추억 만들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3월에 접어들면서 길게만 느껴졌던 보스톤의 겨울도 어느덧 끝무렵으로 다가서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의 끝자락에서 낭만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보스톤의 야외 스케이트장을 소개한다. 야외 스케이트장은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대부분이 3월 중순경 폐장을 앞두고 있다. 이 겨울이 지나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보스톤 하버 호텔 스케이트 링크

70 Rows Wharf, Boston, MA 02110
617-439-7000
www.winteronthewharf.com

보스톤 하버 호텔(Boston Harbor Hotel)의 스케이트 링크에서는 항구와 시내 야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3월 15일까지 개장하는 야외 스케이트 링크의 입장료는 어른 \$10, 어린이 \$5이다. 스케이트 대여료는 어른과 어린이가 각각 \$10, \$8이다. 개장 시간은 평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프로그 폰드

The Boston Common Frog Pond, Boston, MA 02108
617-635-2120
bostonfrogpond.com

보스톤 커먼에 위치한 프로그 폰드(Frog Pond)는 보스톤의 대표적인 야외 스케이트 링크 중 하나다. 일일 스케이트장 이용료는 어른은 입장료와 스케이트 대여를 합해 \$15이며(입장료 \$5, 대여 \$10) 58인치(147cm)이하 어린이는 스케이트 대여료만 지불해서 \$5이다. 물품 보관함 이용료는 \$2이다. 스케이트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을 위해 구비된 귀여운 물개 모양의 보조기구의 한 시간 대여료는 \$10이다.

한편,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칼리지 나잇(College Night)으로 학생증을 지참한 학생에 한해 입장료가 절반 가격인 \$2이다. 폐장일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니 웹사이트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는 것을 권장한다.



▶잭 키레인 스케이트 링크

23 Newton St., Brookline
617-739-7518

brooklinerec.com/152/Kirrane-Ice-Skating-Rink

브루클라인의 라즈 앤더슨 공원(Larz Anderson Park)에 위치한 잭 키레인(Jack Kirrane) 스케이트 링크는 올 시즌 3월 8일까지 개장한다. 브루클라인 거주자는 \$11(입장료와 스케이트 대여 포함)에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으며 타 지역 거주자는 \$13이다.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에는 남자 하키 게임이 열려 신나는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캔달 스케이 커뮤니티 스케이트 링크

300 Athenaeum St, Cambridge MA 02142
617-492-0941
skatekendall.com/skating/skating.php

캔달 스케이 중심부에 위치한 커뮤니티 아웃도어 스케이트 링크는 독특한 모양의 스케이트장을 보유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입장료는 어른이 \$5이며 학생은 \$3, 13세 이하 어린이는 \$1이다. 스케이트 대여료는 어른과 학생이 \$8이며, 어린이는 \$5이다. 물품 보관함 사용료는 \$1이다.

개장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며, 금요일은 밤 9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1시에 개장해 각각 밤 9시와 저녁 6시에 폐장한다. 폐장일은 3월 중순으로 공지된 상태다.



▶켈리 아웃도어 스케이트 링크

1 Marbury Terrace, Jamaica Plain, MA 02130
617-727-7000

자메이카 플레인에 위치한 켈리 아웃도어(Kelly Outdoor) 스케이트 링크는 크지 않아 오히려 아담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다. 동네 스케이트장인 만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이다. 입장료는 무료며, 스케이트 대여료는 어른과 어린이가 각각 \$2, \$1이다. 개장 시간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부터 7시 30분까지며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7시 30분까지다. 폐장일은 3월 중순으로 정확한 날짜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보스톤미술관 구정축제, 7천여명 몰려

한국, 중국, 베트남 구정 문화
선보여

외국인 참석자, 너도나도

한복입고 세배 체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과 중국, 베트남의 구정 문화를 소개하는 제2회 보스톤 미술관 구정행사가 지난 21일 토요일 7천여명의 인파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 문화 행사를 기획한 한미예술협회의 김병국 회장은 “외국인 관중들이 줄을 서서 한복을 입어보고 사진을 찍는 모습에 흐뭇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의 뜻을 가르치고 한복의 우아함을 보여줄 수 있었던 좋은 기회” 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이렇게 한국 문화와 풍습을 자연스럽게 미국 사회에 소개해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한국문화 행사로는 세배 체험 행사와 NEC밴드 ‘하품하는 하마’의 퓨전국악 연주, 한지 공예가 진행되었다.

사진 작가 이현영씨가 진행한 세배 행사는 설날 전야에 부모가 조부모에게 감사의 절을 하고, 설날 아침에 세대마다 돌아가며 새배와 덕담을 나누는 광경을 재현했다. 안길남, 김동희 부부가 조부모 역할을 맡았고 황지영, 이수범, 하상원, 김요셉 씨가 가족 세배시범을 선보였다.



지난 21일 열린 보스톤 미술관 구정축제에서 외국인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세배 체험 행사



퓨전 국악을 연주하는 NEC 하품하는 하마

행사 이후에는 외국인 참석자들이 한복을 입고 직접 세배를 시도해 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음악 행사로는 가야금 주자 김도연 씨가 색소폰, 마림바와 북으로 구성된 밴드 ‘하품 ‘는 하마’ 와 함께 퓨전 국악을 선보였다. 명화에 둘러싸인 갤러리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김도연 씨의 산조 독주를 비롯해 뱃노래 등의 퓨전 창작곡이 연주되어 빈 공간 없이 앉고 서 있었던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외에도 한지로 컵받침을 만드는

어린이 공작 시간에는 각국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 한국 문화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중국과 베트남 문화 행사로는 사자춤, 쿵푸 등의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보스톤 미술 박물관 측은 “작년보다 15% 가 증가된 7,000명의 관중이 방문한 무척 성공적인 행사였다” 며 “보스톤 미술관의 연례행사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한인회 삼일절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보스턴 한인회(회장 한선우)가 주최하는 삼일절 기념행사가 오는 3월 1일 일요일 렉싱턴 소재 성요한 감리교회에서 개최된다.

제96주년 삼일절을 맞아 열리는 이날 기념식에는 ‘아름다운 삼일절’이란 주제의 음악회와 한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한인회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한인회는 회장 후보가 없어 한선우 한인회장이 직무대행의 비

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새로운 한인회장이 탄생할지, 임시회장이 세워지게 될지 아니면 한인회장이 공식으로 남을지 등의 추측과 함께 한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3월 1일 일요일 오후 4시

장소: 렉싱턴 성요한 감리교회 (2600 Massachusetts Avenue, Lexington, MA 02421)

bostonkorean@hotmail.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삼일절 기념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회장 이동문)가 주최하는 제96주년 삼일절 기념행사가 오는 3월 1일 로드아일랜드 소재 제일 한인교회에서 열린다.

독립선언문 낭독, 삼일절 노래 제창 등이 진행되는 1부에는 특별히 로드아일랜드 제일 한인교회의 이창주 목사가 ‘제암리 3.1 운동’이라는 특별 강연을 전달한다.

이어지는 2부에는 제1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장학금 수여식이 진

행되며 총 5명의 뉴잉글랜드 지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장학금을 수여받는다. 이후에는 뉴포트의 ‘대한민국 독도 팔각정’ 프로젝트에 대한 토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3월 1일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로드아일랜드 제일 한인교회 (546 Budlong Rd, Cranston, RI 02920)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 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법보신문, 문수사 도범 스님의 ‘전통 차 문화’ 소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치열한 경쟁구도의 한국사회에서 차 한 잔의 여유는 절실하다.” 현대인에게 주는 도범 스님의 진단이다.

보스톤 문수사의 도범(道梵) 스님의 ‘전통 차 문화’가 지난해 11월 24일 한국 법보신문의 기사로 소개된 것이 최근 알려져 ‘한국 차 문화 찾기’에 대한 도범 스님의 노력이 재조명됐다.

지난해 11월 15일,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와 성균관대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한 21세기 전통 차 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도범 스님은 1970년대의 차 문화운동 태동기에 얽힌 인연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고려의 차 문화가 조선 건국과 함께 거의 사라진 후 초의에 이르러 다시 중흥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차맥은 거의 끊어졌다. (중략) 일찍이 차를 배웠던 도범 스님은 한국 고유의 차 문화를 찾으려 애썼다. 산중에서 내려오는 제다법이나 행다법을 안다는 사람이 있다는 풍문만 들어도 천리를 마다않고 달려갔다.” 도범 스님을 소개하

는 법보신문의 일부다.

도범 스님은 봉암사 주지를 맡는 동안 차 문화 확산을 위해 매달 두 차례 저녁예불을 마치고 40여명의 선방 스님들을 대상으로 차 문화 강의와 시연을 가졌다. 이는 사찰에서의 최초 ‘차 문화 강의 프로그램’으로 기록되었다.

이날 강연에서 도범 스님은 스스로가 차인이기에 앞서 수행인임을 강조했다. 도범 스님의 수상집 ‘구도자의 발자취-봉암사에서 보스턴까지’ (2011년, 행림서원)에서 차와 함께 하는 수행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이 밤도 찻종자에게 근원적인 삶의 뜻을 묻노라니 머뭇머뭇 여여하고 행함은 서서히 하라 합니다. 작은 찻종을 비우고 다시 맑은 향의 차를 채워가며 마시듯 부질없는 생각들을 비워가며 빈자리에 연꽃과 같은 마음을 채웁니다.”

도범 스님은 1980년대 후반 ‘좀 더 큰 세상을 보겠다’며 보스턴으로 향했고 1992년 웨이크필드(Wakefield)에 보스톤 유일의 조계종 한국사찰 문수사를 창건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고 최형철 씨 추모식 문수사에서 열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미국 생활의 대부분을 전신마비 아내를 돌보고 자녀들 키우는데 헌신한 고 최형철 씨 추모식이 문수사에서 21일 열렸다.

문수사 도범, 혜각 스님의 집례로 3제를 올린 이날 추모식에는 미망인 최혜연 씨와 3남매의 자녀들 그리고 약 60여명의 추모객들이 참여해 고 최형철 씨의 명복을 기원했다.

특히 추모객의 상당수는 최혜연 씨 자녀들의 친구들이었으며 일부 문수사 신도들 그리고 한인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문수사 법당에서 방석을 깔고 앉아 진행하는

낮선 불교 추모식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3제에 참여하며 고인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추모식에 참여한 한선우 보스톤 한인회장은 “이제 남은 재판이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인사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고 최형철 씨의 아내 최혜연 씨는 지난 1997년 구입한 지 1년도 안된 도요타 차량을 타고 90번 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해 전신마비가 되는 불운을 당했다. 이후 최 씨와 아내 최혜연 씨는 지금까지 법정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최형철 씨는 지난 9월 중순 MGH에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했으며 지난 2월 8일 6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일반적으로 췌장암 환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거의 겪지 않고 세상을 떠나 짧은 생애에 지나긴 법정싸움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을 수도 있다는 주위의 평가를 듣기도 했다.

도움 또는 부의금 전달 원하는 한인들을 위한 고 최형철 씨 주소:

Choi, H.Y. 50 Memorial Road 18C, Somerville, MA 02145

editor@bostonkorea.com

법륜스님의 정토불교대학 봄학기 개강

보스톤, 벨몬트시
법륜스님 온라인 강의 들어
해외 30개 지역서
동시 개강, 28일 등록 마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법륜스님의 영상강좌를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정토불교대학의 봄학기가 보스톤에서도 3월 3일 개강해 인원을 모집 중에 있다.

보스톤 열린법회의 이미경 씨는

“스님의 명쾌한 답변의 기본이 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정토불교대학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봄학기 강의는 보스톤 열린법회가 열리는 벨몬트에서 매주 1회 3시간 동안 진행된다. 강의 진행의 최소 인원은 5명이며 보스톤에는 현재 4명이 등록을 한 상태로 모임의 구체적인 시간과 요일은 추후에 정해질 예정이다.

온라인 강의 형식으로 열리는 법륜스님의 강의안은 총 1년 과정으로 1학기(실천적 불교사상, 인간 붓다의 삶과 사상)와 2학기(근

본불교, 불교의 변천사)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명상 수련, 환경 및 복지, 통일에 대한 특강 등의 특별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정토불교대학의 봄학기 등록은 다음 링크(<http://goo.gl/vIfPPz>)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마감일은 오는 28일 토요일이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학력 제한 없음)이다. 입학금은 12만원이며 수업료는 무료다.

수강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스톤 열린법회(boston-jungto@gmail.com)로 하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문수사도범 스님이 지난해 11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통 차 문화에 대해 강연했다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보스톤 2일부터 스페이스 세이버 수거

48시간 룰 잠정 해제했다
다시 거둬들여
주차 전쟁 사우스 보스톤
일부 실망, 일부 환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시는 3월 2일 월요일부터 주차공간의 눈을 치우고 자리를 확보하는 소위 스페이스 세이버(space saver)를 일제히 수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보스톤 시는 25일 언론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다음주 쓰레기 수거일인 3월 2일부터 늘 논란이 되는 주차공간 확보 스페이스 세이버를 모조리 거둬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이메일에서 마틴 월시 보스톤시장은 “보스톤시에는 지난 한달 전례 없는 많은 눈이 내려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특히 주차도 그 중 하나였다”고 말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몇 시간에 걸쳐 눈을 치웠다면 일정 시간 정도는 이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올스톤 하버드 애비뉴 역은 눈에 덮여있고 역은 폐쇄되었다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있어야 한다. 이제 스페이스 세이버를 치움에 따라 이웃간의 이해와 존중이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페이스 세이버는 일반적으로 눈을 치운 후 48시간 동안 유지하며 주차공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보스톤시의 가이드 라인이었다. 그러나 최근 월시 시장은 이 48시간 룰을 잠정기간 동안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주차가 어려운 사우스 보스톤의

경우 폭설이 오는 경우 주차전쟁으로 유명하다. 눈을 치우고 마련한 제한된 주차 공간을 두고 양측 주차를 하려는 사람과 스페이스 세이버를 설치한 사람간의 차량 훼손 사건이 발생해왔다

이번 월시의 스페이스 세이버 수거 정책을 두고 기존의 스페이스 세이버 확보 주민들은 반대 의견이 강하고 반면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던 주민들은 대대적인 환영을 표시했다.

hsb@bostonkorea.com

마틴 월시 시장, 눈치운 주차공간 48시간 룰 해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은 눈치운 주차 공간 48시간 소유 제한 제도를 잠정적으로 폐지키로 한다고 21일 밝혔다. 폭설 후 주차전쟁으로 유명한 사우스 보스톤에서는 마틴 월시 시장의 이번 조치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했다. 폭설로 주차공간이 좁아지면 일반적으로 주차공간의 눈을 삼으로 치우고 이곳을 자신만 이용토록 의자, 콘 등 물건(Space Saver)을 두어 다른 양측 주차객들의 주차를 막아왔다. 그러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해지자 토마스 메니노 전 시장은 주차 공간 소유를 48시간으로 제한했었다.

그러나 100인치가 넘는 눈이 한달 사이에 쏟아지면서 마틴 월시 시장은 자신이 치운 주차공간의 확보가 유일한 주차방법일 수 있

다며 이 같은 제한 조치를 일정 시간동안 해제키로 했다.

사우스 보스톤에서는 스페이스 세이버로 오렌지 콘, 테이블, 의자, 심지어 작은 소나무까지 갖다 놓는 주민들이 등장키도 했다.

사우스 보스톤에서는 삽질해서 만든 주차 공간은 당분간 삽질을 한 주민이 소유하는 것이 룰이다. 그러나 이 룰은 때론 잘 안지켜지기도 하고 이웃간의 다툼으로 변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타이어를 훼손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월시 시장은 이 같은 범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시 시장은 “만약 차를 훼손하는 경우 바로 이 같은 사람을 체포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에게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올시즌 적설량 100인치 넘었다

2014-15시즌 101.8인치
사상 두번째 많은 눈의 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5일 새벽 내린 눈으로 보스톤의 올시즌 적설량이 100인치를 초과했다.

25일 새벽 보스톤 로건공항에는 약 20인치가 조금 못되는 눈이 쌓여 2014-



2015 시즌 종합 101.8인치로 지난 1995-1996년 시즌에 이어 두번째 눈

이 많은 겨울시즌으로 자리매김했다. 기상청은 수요일 기온이 약간 높아지겠지만 목요일부터는 다시 캐나다에서 내려오는 북극의 차가운 기단으로 온도가 낮아지며 일요일 밤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월 첫째 주가 되는 다음주에는 최소한 이번주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hsb@bostonkorea.com

한남성 전철역 에스칼레이터에 코트 끼어 부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남성이 25일 아침 오렌지 라인 차이나 타운역 에스칼레이터에 코트가 끼는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오전 9시 20분께 에스칼레이터를 올라탔다가 코트가 끼어 미끄러지며 뒤쪽으로 넘어졌으며 에스칼레이터가 다시 밀어 들어가는 곳까지 끌려가 팔꿈치 부분이 끼었던 것으로 전해

졌다. 소방관들이 출동해 에스칼레이터 전원을 끄고 이 남성을 구출했다. 이 남성은 9시 45분께 텅스 메디컬 센터로 후송되었으며 부상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전에는 레드라인 포터스퀘어 역에서 한 히스패닉 남성의 옷자락이 에스칼레이터에 끼어 질식사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테러 위협에 쇼핑몰 경계 강화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쇼핑몰들이 경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테러 단체가 미국 쇼핑 센터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에 따른 것이다.

지역 경찰들은 쇼핑몰에 대한 순찰을 늘리고, 배달 차량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경찰 당국은 소셜 미디어에서 주고 받는 대화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쇼핑몰 운영자들이 말했다.

소말리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알샤바브(al-Shabaab)는 미국과 함께,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을 거론하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쇼핑몰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동영상 공개했다.

알샤바브의 쇼핑몰 테러 위협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단체가 이미 2013년에 비슷한 테러를 자행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알샤바브는 2013년에 케냐의 쇼핑몰을 공격하여 67명을 살해했다.

쇼핑몰에 대한 경비가 강화되더라도 쇼핑몰은 테러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GlobalSecurity.org의 존 파이크는 “쇼핑몰은 테러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쉽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보안 상태가 낮다”며 “게



알샤바브가 케냐의 웨스트게이트 쇼핑몰을 공격할 당시의 CCTV 화면

다가 미국 전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에게는 좋은 공격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네이티브의 수석 지배인 제니퍼 커니는 성명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쇼핑몰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커니는 “대중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으며, 취약한 부분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쇼핑몰에는 이미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에서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배달 트럭 등이 쇼핑몰 내로 진입할 때 도난 차량인지를 식별해낼 수 있다.

파이크는 테러 위협 수준이 바뀌면 보안 수준도 바뀔 것이라며 “테러 위협으로 미국 내 쇼핑몰이 한가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주로 쇼핑을 하는 쇼핑 센터가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을 확률은 극히 낮다. 나라면 계속해서 쇼핑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패트릭 전 주지사 하버드 졸업식 연사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드벌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오는 5월에 있을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사로 서게 된다.

올해 1월에 매사추세츠 주지사로서의 2번째 임기를 마친 패트릭 전 주지사는 하버드 대학 출신이다. 패트릭 전 주지사는 1978년에 하버드 학부(Harvard College)를 졸업했고, 이어 1982년에 하버드 법학 대학원(Harvard Law School)을 졸업했다.

드류 파우스트 하버드 대학 총장은 패트릭 전 주지사가 올해 졸업식 연사로 단상에 서게 되었다고 발표하면서 “패트릭 전 주지사는 헌신적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하였으며, 스스로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 패트릭 전 주지사는 시카고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학업을 위해 14세에 보스턴에 왔다. 패트릭 전 주지사는 명문 사립 고등학교인 밀튼 아카데미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였으며, 자신의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민주당원인 패트릭 전 주지사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법무부 보좌관을 지냈으며, 매사추세츠 주지사로서 선출되기 전에는 텍사코와 코카콜라에서 중역으로 일을 한 경력도 있다. 이후 2006년에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선출되었다.

패트릭 전 주지사는 5월 28일에 있을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오후에 연설을 할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정관장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하루 2번,
면역력을 지키는
습관

진한 홍삼파워 **홍삼정**
6년근 홍삼을 최적의 조건으로
달여 그 진액만을 농축시킨 고순도
상품으로, 한국인삼공사의 대표적
홍삼상품입니다.

240g / 120g / 30g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고를 드세요.



기력회복
감기예방
당뇨 합병증 예방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항암효과
혈액순환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기억력 개선

미주 한인의 **힐** 대한민국 **뿌리**에 있습니다



순수 홍삼의 품미
홍삼 추출액

고품질 6년근 홍삼을 사용하여 110
여년의 축적된 기술로 뿌리삼 내용
성분을 그대로 추출하여 담아낸
100% 순수 홍삼 제품입니다.

30포 (한달분)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턴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보스콘공립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이 어린이들에게 맞춘 화려한 색깔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재단장했다

사진=유다인 기자

보스콘 공립도서관 화려한 새단장

어린이 맞춤형 색깔
7천5백만달러 예산
2016년 완공될 예정

(보스콘 = 보스콘코리아) 유다인 기자 =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카플리 공공도서관의 리노베이션이 한창인 가운데 2층 존슨 빌딩의 어린이와 청소년 소재 공간이 처음으로 알록달록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1일 토요일 마틴 월시 시장의 리본 커팅식과 함께 공개된 어린이 공간은 카펫부터 벽, 장식까지 다양한 색감과 아기자기한 그림으로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와 같

은 변신에 어린 자녀를 둔 보스콘 주민들의 얼굴엔 화색이 돈다.

6살인 딸과 함께 카플리 도서관을 찾은 최 씨는 “아무래도 쇼핑하러 나올 때 아니면 시내를 잘 안오게 되는데, (딸이) 이렇게 좋아하면 곤란해요”라며 웃었다. 딸은 그렇게 해도 그림책을 안고 가장 예쁘고 맘에 드는 장소를 찾는 데에 신이 난 딸을 보며 최 씨는 덩달아 기분이 좋다.

1972년 이 공간이 지어졌을 당시의 모습을 유지해오던 도서관은 리노베이션 전까지 40여년된 카펫과 칙칙한 구조물을 그대로 간직해왔다. 도서관 서비스 디렉터 마이클 콜포드는 이전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어린이 서재, 청소년 서재, 논

픽션 서재에는 알록달록한 인테리어와 함께 편안한 쉼터가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라운지나 카페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커피와 간식 반입이 가능하다.

한편, 도서관 이용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변화는 화장실의 추가 개설이다. 지하 1층에 하나 뿐이던 화장실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왔지만 이번 리노베이션을 통해 화장실이 각 층에 하나씩 추가 개설될 예정이다.

2016년까지로 예정된 코플리 공공도서관의 리노베이션은 이번에 선보인 2층 공간을 비롯해 1층과 중이층, 외관 디자인을 포함하며 이에 따르는 예산은 총 7천5백만 달러로 추정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눈 쌓인 지붕 붕괴 사고 속출

(보스콘 = 보스콘코리아) 한새벽 기자 = 폭설로 하중을 견디지 못한 지붕 붕괴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보스콘 남쪽 캔튼에서 지붕의 눈을 치우려다 추락해 2명이 사망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캔튼 경찰서에 따르면 한 남성은 22일 지붕의 눈을 치우려다 천장의 채광창이 있는 부분을 밟아 40피트 아래로 추락했다. 이곳에 눈이 덮여있어 채광창 부분인지 파악을 못했던 것이다. 그는 추락 후 바로 브락튼 소재 굿 사마리탄 메디컬 센터에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에 앞선 18일 역시 캔튼 타운에서 지붕의 눈을 치우려던 30대 중반의 남성이 지붕에서 추락해 헬기를 타고 후송됐지만 병원에서 사망했다.

캔튼 경찰은 “지붕 위의 눈을 직접 치우지 말고 이를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충분한 장비를 갖추

고 이를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가능한 직접 지붕을 치우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스콘 서쪽에 위치한 웰슬리에서는 한 남성이 자신의 집 밖에 있는 트렐리스(격자 울타리, trellis)에 쌓였다 떨어진 얼음에 어깨에 떨어져 부상을 입기도 했다.

매사추세츠 재난관리 본부(MEMA)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이래 지붕 붕괴 신고가 147건이나 접수됐다. 이중 3분의 2는 지난 22일 눈과 눈비가 섞여 내린 이후에 신고됐다. 눈이 눈비로 인해 하중이 가중되어 지붕이 붕괴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MEMA는 이 같은 지붕붕괴 사건이 웨스트포드, 에임스베리, 첼스포드, 프레밍햄, 웨스트포드 그리고 우스터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옴폭 파인 도로 옹덩이 팟홀 주의

(보스콘 = 보스콘코리아) 정성일 기자 = 폭설과 강추위에 따른 제설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늘어나는 게 팟홀(pothole)이다. 최근 들어 수많은 팟홀들이 도사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팟홀은 자동차 타이어 파손은 물론 림에도 훼손을 가해 심각한 재정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팟홀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는 경우 사고로 더 많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겨

울철에는 팟홀을 주의하고 서행 운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특히 팟홀을 발견했을 때 이를 바로 매사추세츠 교통부에 신고해 주어야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심각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교통부는 주정부와 관할하는 고속도로, 주요 간선 도로 등의 팟홀을 운전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857-DOT-INFO; 857-368-4636)을 운영 중이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국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나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콘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10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환경,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중이며 물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격의 자리와 집과 사업에 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EXCLUSIVE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LEXINGTON

단독주택
For sale: \$ 799,000
2 BEDS, 2.5 BATHS, 1,811 SQ FT

ACTON

CONDO(2014년 새집)
For sale: \$ 699,900
4 BEDS, 3 BATHS, 3,200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

NATICK

CONDO
For sale: \$ 489,900
2 BEDS, 2 BATHS, 1,303 SQ FT
NATICK MALL 과 PRIVATE 통로로 연결되어 있음

엘런, 하원 청문회서 공화의원들과 설전

전날 미 상원에서의 연설과
통화정책 내용은 대동소이

(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정환 기자 = 자넷 엘런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25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연준이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공격에 맞서 설전을 벌였다.

이날 평소 내성적인 엘런 의장은 연준에 대해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을 평가절하하고 연준의 의도에도 의문을 나타내는 공화당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불쾌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의원들은 엘런 의장이 백악관을 방문하고 재무장관을 만난 것에 대해 압박하며 연준이 민주당에 편향적이라고 공격했다.

공화당 소속 스콧 개럿 의원(뉴저지주)은 엘런 의장이 의회에서도 공화당 의원들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을 더 많이 만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원인 엘런 의장은 "우린 폭넓게 사람들을 만난다"며 "그것은 연준의 미팅 스케줄을 완전하게 왜곡해서 묘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엘런 의장의 표정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그러졌다. 현재 미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을 통제하고자 시도해왔다. 미 하원은 연준을 겨냥한 안건들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 번번히 좌절되곤 했다.

약 1년 전 연준의 수장이 된 엘런



자넷 엘런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25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질의응답을 벌이고 있다

의장은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 의원들과의 긴장감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엘런 의장의 소득 불평등 발언을 물고 늘어졌다. 그들은 엘런 의장의 이 발언이 민주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여전다를 측면 지원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엘런 의장은 "소득 불평등은 이 의회 내 모든 사람들이 우려해야 할 문제"라며 "나는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몇몇 의원들은 엘런 의장이 재무장관과 만난 일을 문제 삼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투명하게 대중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엘런 의장은 이를 거부하며 장관이 아닌 국회의원들과 만났더라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엘런 의장은 "연준은 독립적이다"며 "나는 연준이 취하려는 조치나 통화정책에 대해 일일이 재무부나 행정기관과 의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정기적으로 경제 및 금융 제도에 관해 협의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엘런 의장은 이날 연설에선 전날 하원에서 행했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기조와 선제적 안내 문구 변경 여부를 그대로 되풀이했다.

그는 전날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도 최소한 앞으로 두 차례의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엘런 의장은 이날도 기준금리 인상 전에 그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선제 안내 문구를 변경하겠다고 한 발언도 그대로 유지했다.

acenes@news1.kr

상원, 오바마 이민개혁 조항 뺀 국토안보부 예산안 가결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상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법 개혁 관련 조항을 뺀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을 25일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회의에서 수정된 예산 집행 법안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수정예산안의 통과를 전날 미치 맥코넬(공화·오크라하) 상원 원내대표와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토안보부 예산안과 불법체류자 추방유예안을 구분해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하원으

로 송부됐다.

의회가 국토안보부의 2015 회계연도 잠정예산안 시한인 27일까지 정식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첫다운(부분 업무정지·폐쇄) 사태가 불가피해진다.

지난달 공화당은 지난해 말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발령한 최대 5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반발해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기관인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부처에 대해서만 예산안에 합의했다.

lchung@news1.kr

네타나후 총리방문 두고 논란 계속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베냐민 네타나후 이스라엘 총리의 미국 방문을 둘러싸고 논란과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 보도했다.

네타나후 총리는 미국 공화당의 초청으로 다음달 3일 방문해 이란, 이슬람의 위협을 주제로 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펼칠 예정이다.

네타나후 총리는 이번 연설을 이란의 핵개발 반대에 대한 양국 간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의 핵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네타나후의 연설이 미-이스라엘 관계에 "당과 갈등을 주

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 구조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미-이스라엘 관계는 "언제나 초당적이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이스라엘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이뤄지는 네타나후 총리의 미국 방문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내부에서는 시기상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일찌감치 네타나후 총리와의 회동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나 국무부와의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781.391.6200
781.391.7700

78 SWAN ST. MEDFORD, MA 02155
FAX: 781.827.0867 EMAIL: SUNAUTOBODY@YAHOO.COM
WEBSITE: <http://sunauto-boston.haninis.com/>

엔티비(Enti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TV는 사랑을 싣고

발렌타인데이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 29.99**

2월 28일까지(2년 약정시)



문의 및 예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KBS, MBC, SBS, SBS Plus, tvN, XFM, O'live, acn, The Best On Demand, TBO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핫스톤
속 눈썹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Office. 617.795.0095, Cell. 617.970.6038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모바일결제 무한경쟁 승자는... 구글, 삼성·애플 견제

미 이통사 압력으로
삼성 갤럭시에 중복
선탑재 우려



구글이 미국 3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결제 기술 컨소시엄인 '소프트카드'와 제휴해 구글 월렛을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고 23일 애리얼 바딘 구글 결제부문 부사장이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구글이 미국 주요 이동통신사들과 동맹을 맺고 결제서비스 '구글 월렛'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선탑재키로 하면서 모바일 결제 분야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베로부터 분사된 페이팔, 중국 시장을 장악한 알리페이, '애플 페이'로 돌풍을 일으키는 애플 등이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삼성전자도 '삼성 페이'로 알려진 자체 서비스를 차기 갤럭시 모델에 탑재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플라스틱 신용카드 대신 쓰도록 하려는 구글, 애플, 삼성 등 3사는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선발 주자인 페이팔과 알리페이가 디지털 결제 전반을 다루는 것과 달리, 구글, 애플, 삼성은 스마트폰을 결제 매개체로 삼는 기술을 보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플라스틱 신용카드 대신 쓸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기반 비접촉식 결제' 기술을 소비자들이 사용토록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구글과 미국 이동통신사 동맹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일단 사용자들 급격히 늘리는 애플로 보이지만, 시장에 진입하려는 삼성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다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동맹에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구글과 미국 이동통신 시장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버라이즌, AT&T, T-모바일 US가 참여기로 했다.

◇ 구글·애플·삼성 '스마트폰 결제' 경쟁

구글은 2011년 구글 월렛을 선보였으나 지금까지 사업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삼성 갤럭시 S2 이후 주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대부분에 근거리통신(NFC) 칩이 들어가는 등 하드웨어 보급은 비교적 빨랐으나, 소비자들의 실제 사용은 많지 않았다.

구글 월렛 결제가 가능한 매장 단말기의 보급이 더디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실제 사용이 플라스틱 카드보다도 불편하다는 점이었다.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대고 암호를 입력해야 했던 탓이다.

이 때문에 구글 월렛으로 대표되던 NFC 스마트폰 기반 비접촉식 결제는 기기와 인프라 보급이 어느 정도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작년 10월 애플이 '애플 페이'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애플은 신제품 아이폰 6와 6 플러스에 탑재된 NFC 칩과 아이폰의 지문인식 시스템인 '터치 아이디'를 결합해 사용자들이 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 결제 단말기 가까이에 아이폰을 대면 손가락으로 아이폰의 홈 버튼을 누르면 지문 인식을 통한 신원 확인과 스마트폰 확인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지문 인식을 통해 어느 정도의 보안성도 확보했다.

이 때문에 맥도날드, 월그린, 홀푸드 등 극히 일부 소매점에서만 애플 페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페이 사용 건수와 금액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었다.

애플은 금액 기준으로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미국 3대 신용카드사를 통한 비접촉식 결제 3분의 2 이상을 애플 페이가 차지한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의 모바일 결제 기술업체 '루프페이'를 인수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비접촉식 결제 시장은 3파전으로 확대됐다.

루프페이는 미국에서 아직 널리 쓰이는 마그네틱선 방식 카드 단말기의 약 90%에서 이용이 가능한 비접촉식 결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NFC 방식뿐만 아니라 기존 마그네틱선 방식 카드 관독기가 있는 매장 대부분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갖게 됐다.

삼성전자는 내달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에서 발표할 신제품 스마트폰 갤럭시 S6에 '삼성 페이' 시스템을 탑재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구글, 이통사 동맹 통해 삼성 압박

구글이 미국 주요 이동통신사들과 동맹을 맺고 구글 월렛을 선탑재키로 한 것은 삼성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동통신 업계의 생리상, '갑'인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을'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구글 월렛을 선탑재하도록 강력히 요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제조사는 사실상 없다.

적어도 지금까지 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동통신사의 앱·서비스 선탑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제조사는 애플이 유일했다.

그런데 정황상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구글 월렛 선탑재를 매우 강력하게 요구할 공산이 크다.

이 이통사들은 2010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NFC 기반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업체 '소프트카드'를 차렸으나 사업은 지지부진했고 구글 월렛과의 충돌도 겪었다.

그런데 구글이 이번 동맹을 체결하면서 소프트카드의 지적재산권과 기술을 인수하는 데 합의하면서 그간 비협조적이었던 이통사들을 단숨에 동지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구글은 상세한 거래 금액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통사들이 동맹에 참여하고 안드로이드 폰에 구글 월렛을 선탑재토록 하기 위해 꽤 큰 대가를 지불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 경우 갤럭시 S6 등 미국에서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신제품 단말기에 구글 월렛과 삼성 독자 솔루션 '삼성 페이'가 함께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삼성전자의 입장은 상당히 난감해진다.

과거 삼성 챗온과 구글 행아웃, 삼성 리더스허브와 구글 플레이 북스, 삼성 S 보이스와 구글 음성인식 등 기능이 겹치는 앱과 서비스가 삼성 단말기에 함께 탑재된 사례가 꽤 많았으나, 삼성의 입장에서 모두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경험도 있다.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명목상의 장점'은 있었으나 삼성 자체 서비스가 소비자들 사이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이다.

solatido@yna.co.kr

자동차 내구품질 1위 렉서스... 현대·기아는 중하위권

JD파워, 2015 차량
내구품질 조사 발표

BMW(146건)는 15위와 19위, 기아차(158건)가 21위, 폴크스바겐(165건)이 22위, 현대차(188건)가 포드와 함께 25위였다.

이어 닛지(192건), 미니(193건), 지프(197건), 랜드로버(258건), 피아트(273건)가 각각 27~31위로 집계되며 전체 31개 조사 대상 브랜드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가 내구품질이 가장 좋은 차량 브랜드로 4년 연속 선정됐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JD파워는 31개 자동차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2015 차량 내구품질 조사'(VDS) 결과를 25일(현지시간) 내놓고 렉서스가 다른 브랜드보다 월등히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구매 후 3년이 지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엔진, 내·외관, 주행 등 177개 항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설문한 것으로, 렉서스는 차량 100대당 문제발생 건수가 89건에 불과해 전체 브랜드 평균(137건)보다 크게 적었다.

렉서스에 이어 뷰익이 차량 100대당 110건의 문제가 발생해 2위에 올랐다. 3위는 도요타(111건)였으며 4위는 캐딜락(114건), 5위는 혼다와 포르세(116건)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7~9위는 링컨(118건), 메르세데스-벤츠(119건), 사이언(121건)이었고 쉼보레와 GMC(123건)가 공동 10위였다. 아우디(138건)와

이는 자동차에 갈수록 많은 첨단 기술 부품이 들어가는 것을 반영한다고 JD파워는 설명했다. 과거에는 품질을 등 차량 디자인 상의 문제나 브레이크 삐걱거림 등 기계적 문제가 가장 흔한 사례였다.

차급(세그먼트) 별로 내구품질이 가장 좋은 차종은 사이언 xD(경형), 도요타 코롤라(소형), 쉼보레 말리부(중형), 뷰익 라크로스(대형)이었으며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에서는 기아 스포티지가 가장 우수했다.

JD파워는 차량 내구품질 조사를 198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26번째다. 올해는 2012년형 차량 소유자 3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조사했다.

banghd@yna.co.kr

〈표〉 JD파워의 '2015 차량 내구품질 조사' 순위

순위	브랜드	차량 100대당 문제발생 건수
1	렉서스	89
2	뷰익	110
3	도요타	111
4	캐딜락	114
5	혼다	116
5	포르세	116
7	링컨	118
8	메르세데스-벤츠	119
9	사이언	121
10	쉐보레이	123
10	GMC	123
12	어큐라	124
13	닛산	128
14	램(RAM)	134
15	아우디	138
16	마쓰다	140
16	미쓰비시	140
18	인피니티	144
19	BMW	146
20	스바루	157
21	기아	158
22	포크스바겐	165
23	크라이슬러	173
24	볼보	174
25	포드	188
25	현대	188
27	닛지	192
28	미니	193
29	지프	197
30	랜드로버	258
31	피아트	273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Parking Information

-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무코다
트리트먼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악싱
각종 펌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지지율 상승' 문재인, '소통·경제'로 거침없는 투트랙 행보

당내 4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에 이어
ICT선도기업 현장방문

(서울=뉴스1) 김현, 서미선, 이정우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의 정치적 보폭이 지지율 상승 추세와
맞물리면서 커지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당내 4선 중진들과
회동을 갖는 등 '통합 행보'를 이어가
는 한편, 설 연휴 직후부터 강조하고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당내 통합과 동시에 외연확장을 위
한 투트랙 행보를 보이면서 최근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당 지지율과 자신의
대권주자 지지율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읽혀진다.

이와 관련, JTBC가 여론조사 기관
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일 하
루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5%p, 응답률 8.2%) 결과,
문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28.5%로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6~17일 조사에서는 27.5%였다.
다만 정당 지지도는 30.7%로 16~17일

조사(33.8%)보다 3.1%p 하락했다.

문 대표는 이날 김성곤 김영환 신기
남 이석현 이종걸 원혜영 의원 등 당내
4선 이상 중진들과 오찬회동을 가졌다.

문 대표는 1시간 30여분간 오찬 회
동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선
중진 의원들이) '잘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며 "당이 나아가기 위
해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찬에 참석한 신기남 의원에 "통합
해서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
문 대표가) 일단 스탠스를 잘 잡고 잘
하고 있으니,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라
. 탕평책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 넓
은 모습을 계속 보이시라고 격려했다
"고 말했다.

회동에서 일부 의원들은 최근 상승
세를 타고 있는 당 지지율 등을 거론,
"자만해선 안 된다. 총선이 아직 멀었
는데, 그 사이에 여론이 몇 번 바뀌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겸손한 생각
을 갖고 국민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한다"며 "당내 화합을 해야 하고, 대외
관계에서도 단호함과 유연성을 함께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지
율도 별 게 아니다"라고 조언한 것으
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앞으로 경제 문제를 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유스페이스 ICT 선도기업인 KG그룹을 방문해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슈화해서 국민에게 경제에 힘쓰는 모
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히자, 참
석자들은 "좋은 생각"이라며 당내 경
제전문가 충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4·29 재보선과 관련해서 "공천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원칙대로
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4
선 이상 의원들 간담회도 한달에 한번
정도로 정례화했으면 좋겠다"는 한 참
석자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하면서 "공식적으로 만날 때가 아니더라도 생

각이 떠오를 때는 언제든지 회화를 주시
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표는 4선 의원들과 만난 데 이
어 3선 의원과 조·재선 의원들과도 회
동을 갖고 당내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이 기치로 내건 '경제정당' 실현
을 위한 현장탐방의 일환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ICT 선도기
업 'KG그룹'을 찾아 ICT인들과의 간
담회를 가졌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정부

의 경제실패를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
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제한 뒤 "인
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정치연합이 반
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미래성장동력이 ICT산
업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적
으로 최대한 지원·육성하고, 규제는
착한 규제 외에 나머지는 과감하게 푸
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Quincy College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iddlesex Community College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FEB. 27TH - MAR. 5TH,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and Pinterest!

HAPPY PORK BELLY CELEBRATION DAY

3월3일 삼겹살 Day

MARCH 3RD IS PORK BELLY DAY!
 THIS CUT OF MEAT IS SO DELICIOUS
 SO KOREANS GAVE IT
 A NATIONAL HOLIDAY.

Taste the difference with garlic in your lettuce wraps!

Veggies that taste even better with some MEAT!

A delightfully refreshing spoonful of Kimchi!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용 생삼겹살
\$7.99
 lb.

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벌집 삼겹살
\$5.99
 lb.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1.49
 lb.
 FRI/SAT/SUN ONLY 2/28/1 ONLY

ONION 양파
 10 lbs./bag
\$4.99

OHSUNG HONG RAMYUN
 Hot&Spicy/Mild/오성 홍라면
 4.2oz. x 5ea./pkg.
\$2.99

NONGSHIM SHIN BOWL NOODLE SOUP
 2.64oz. x 6ea./pkg.
\$5.99

주말사식코너
 SAT/SUN SAMPLING EVENT

Snack-Size Treats Super-Size Savings

ENJOY GREAT PRICES ON ALL YOUR KOREAN FAVORITES IN SNACK SIZES!
 H마트에서 펼쳐지는 과자 특판전

HMART'S SPECIAL SALE

*아이템이 조기품절 될 수 있습니다.

JINGA
 The Freshest Korean Tradition

EVERYTHING TASTES BETTER WHEN IT'S JINGA

Handcrafted with the freshest and healthiest ingredients.
 엄선된 식재료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있는 식단까지 고려한 진가의 건강 반찬들을 맛보세요.

H MART TOYOTA Let's Go Places

WIN THE NEW 2015 TOYOTA RAV 4 XLE

MASSACHUSETTS CUSTOMER APPRECIATION SWEEPSTAKES
 Until April 9th, 2015
 at All MA Stores (Drawing Date : April 12th, 2015 @ 4pm)
 Simply insert the bottom of your shopping receipts in the Sweepstakes Drawing Bin & you could be a winner. **SMART CARD MEMBERS ONLY WITH OVER \$20 PURCHASE.**

2015년형 토요타 라브 4 XLE의 당첨 기회를 잡으세요!
 H마트 MA 매장 스마트 카드 고객은 \$20이상 장을 보신 후 영수증에 찍힌 응모권으로 응모하시고 행운의 주인공이 되세요!

*******83 WINNERS!**

1st Prize: TOYOTA RAV 4 XLE - \$25,000 + value (1 winner)
 2nd Prize: COCO Cosmetics Gift Set - \$499.99 (1 winner)
 3rd Prize: AMORE Cosmetics Gift Set - \$99.99 value (1 winner)
 4th Prize: Hmart Food Court Gift Certificates Pack - \$50 value (20 winners)
 5th Prize: JUNG KWAN JANG RG Latte Box - \$20 value (10 winners)
 6th Prize: HARU HARU Milled Rice 15 lbs. (50 winners - 25 per store)

1ST PRIZE

COCO Cosmetics

*The actual prize may look different than the image above.

Fuji Apple 후지 사과 lb. \$1.49	FRI/SAT/SUN ONLY 2/28/1 ONLY Napa Cabbage 배추 박스 box \$14.99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lb. \$0.99	Thinly Sliced Beef Brisket for Shabushabu 사브사브용 냉동 차돌박이 lb. \$9.99	Beef Flank Steak 앞치마 양지 (육개장) lb. \$6.99	Chicken Drumstick 치킨 드럼스틱 lb. \$1.49
Porgy 흑도미 lb. \$1.99 FRI/SAT/SUN ONLY 2/28/1 ONLY	TONGTONGBAY Seafood Mix 통통배 해물모듬 1 lb. \$3.99	TONGTONGBAY Small Octopus Sliced 통통배 절단 낙지 1.5 lbs. \$7.99	BADAAECHAN Yellow Croaker Fillet 바다애찬 순살굴비 1.1 lbs. \$14.99	TONGTONGBAY Dried Anchovy (Jiri) 통통배 지리멸치 16oz. \$17.99	Kyong Gi Rice 경기미 40 lbs. \$29.99
NISHIKI Medium Grain Rice 니시키 쌀 15 lbs. \$14.99	CHUNGJUNGONE Anchovy Sauce 청정원 까나리 액젓 6.6 lbs. \$8.99	CHUNGJUNGONE Persimmon Vinegar 청정원 감식초 16.9fl.oz. \$6.99	HAIOREUM Canned Mackerel Pike 해오름 공치 통조림 14.1oz. 2\$3 ea./for	HAIOREUM Aloe Vera Juice 해오름 알로에 베라 주스 All Flavors/16.9fl.oz. \$0.99	KWANG DONG Vitamin Drink 광동 비타500 3.3fl.oz. x 10ea./box \$3.99
HAIOREUM Steamed Buns 해오름 호빵 All Flavors/9oz. ea./for 2\$3	ARIZONA FARM Cactus Honey Powder 아리조나팜 선인장꿀가루 1 lb. \$2.99	SCOTT Bathroom Tissue 스캇 화장지 20rolls/pkg. \$14.99	MINNO Glass Spice Jar Set 4pcs/set \$4.49	Booby Dog Candy Pillow 부비강아지 캔디 베개 All Colors/Large/ea. \$19.99	HELLO HOME Electric Grill 헬로홈 전기그릴 KYS-863A/ea. \$42.99

WE'RE NEVER CLOSED Store hours vary between locations. Please call the one nearest you for exact times. H마트는 1년 365일 항상 오픈합니다. **HMART BURLINGTON**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선관위, '지역구 200석-비례 100석' 제안...판 흔들나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 등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마련

현행 지역구
일대 변동 불가피
국회 정개특위서
격론 예고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의 판을 뒤흔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 개정 의견은 여야의 정치관계법 개정 작업 및 선거구 재획정 논의에서 중요한 참고 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25일 제출할 예정인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인구 비례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19대 국회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대신 의석 수를 2대 1의 비율(지

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로 권역별로 할당하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이다.

인구 하한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선관위가 현행 선거구제를 대폭 손질하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것이다.

선관위가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기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선관위안을 따르면 정당별로 배정된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비례대표 명부 순위로 권역별 비례대표 당선인이 된다. 비례대표 의석할당은 현행과 같이 전국 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명 이상 당선 정당을 기준으로 한다.

선관위는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6개로 권역을 배분하는 방안을 일단 예로 들었다.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려 권역별로 단순 인구비례를 적용할 경우 서울은 47석→59석, 인천·경기·강원은 73석→98석, 부산·울산·경남은 40석→47석, 대구·경북은 27석→31석, 광주·전북·전남·제주는 33석→34석, 대전·세종·충북·충남은 25석→31석으로 변동이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으로 각 지역에 할당된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



김정곤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는 늘어나지만, 현행 246개 중 46개 지역구는 통폐합이 불가피하게 된다. 국회 정개특위 등의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이해관계가 얽힌 여야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김정곤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현재보다 한 개 선거구 규모가 커지는 것"이라며 "표의 등가성이 시도별로 보장 안되는 상황에서 의석을 권역별 인구수대로 할당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성이 높아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같은 시·도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후보로도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지역

구 낙선 후보자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석패율제를 도입한 것이다.

다만 비례대표로 동시 입후보한 후보자의 지역구 득표가 총 유효투표수의 3%에 미달할 경우 당선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해당 시·도에서 소속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가 시·도 전체 지역구의 20% 이상인 경우는 지역·비례 동시 입후보자가 당선될 수 없다.

선관위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간, 시·도별 인구수와 의석수간 불비례성을 극복하여 투표가치의 평등과 대

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지역구 후보자가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게 해 지역주의 완화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 단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해 지역구에 당선되지는 못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당 내에서 열세지역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ydkim@news1.kr

선관위 오픈프라이머리 제안...경선 혁명?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오픈프라이머리(전국동시 국민경선제) 도입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24일 발표했다.

국회에 25일 제출할 예정인 개정 의견에 따르면, 선관위는 각 정당의 대선과 총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의 당내 경선을 국민참여 방식으로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후보자 추천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전국동시 국민경선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며 "국민경선을 직접 관리할 선관위가 구체적인 경선 실시방안을 제시해 정치권의 국민경선 도입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픈프라이머리 실시 날짜도 대선의 경우 선거 전 9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그 밖의 선거는 선거 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로 각각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선

기간은 각 당이 당내 사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대선은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총선과 지방단체장 선거 등은 한 정당이라도 참여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취합해 해당 정당에 통지하는 등 기존에 각 정당에 맡겨졌던 당내 경선 업무를 관리하게 된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따라 발생하는 투·개표 관리 비용은 국가가, 투·개표 참관인 수당은 해당 정당이 부담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매선거마다 선관위 부담이 400억원, 각 정당 부담이 5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선관위는 같은 날 동시 경선을 실시하고, 한 정당에만 투표권자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등 역선택 방지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의 경우 한 개 정당만 원하더라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수 있는 만큼 역선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정당이 참여하면 역선택 가능성이 별로 없겠지만, 한 개 정당이라도 참여하면 국민 경선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며 "선택은 정당의 몫"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한 정당이 오픈프라이머리가 아닌 자체 경선을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상 휴대전화 여론조사 표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번호' 활용 방안도 제안했다.

각 정당이 실제 전화번호가 아닌 가상 전화번호를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받아 이를 활용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선관위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매수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죄에 대한 자수자 특례 규정도 개정 개정 의견에 담았다. ydkim@news1.kr

여야, 선관위 선거·정치제도 개정안 "심도있게 논의할 것"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여야가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역별 비례대표와 오픈프라이머리(전국동시 국민경선제)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선거관리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본 현 선거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이 모든 의견들은 종합해 조만간 가동될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숙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정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치개혁 방안이 논의돼 왔다"며 "새누리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선거제도의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근본취지와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며 큰 틀에서 환영한다"며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이러한 제도들이 적용돼 승자독식의 정치가 개선되고 지역주의가 완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의를 최우선에 놓고, 정치개혁특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며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도입을 위해서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 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강남발 전세대란, 강서·경기서도 전셋값 동반 상승

재건축 올 1만3000가구

이주에 주변 전셋값

동반상승

(서울=뉴스1) 임해중, 오경묵 기자 =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세난이 강서 등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에 접어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만 97곳, 5만9242가구에 이른다. 당장 올해에는 강남4구에서만 1만2732가구에 달하는 재건축 이주수요가 예정돼 강남발(發) 전세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는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재건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주시기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보존 방안이 없어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4구에서만 1만3000가구 이주…전셋값 '고공행진'

12일 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에는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각각 4060가구, 2602가구 가량의 재건축 이주가 예정됐다.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예정된 재건축 이주물량은 각각 5670가구, 400가구로 강남 4구에서만 올해 1만2732가구가 이주를 앞두고 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주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수립된다. 이후 조합이 세운 관리처분계획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인가(관리처분인가)를 받

게 되면 착공을 위해 입주자들 이주와 건물 철거작업이 함께 진행된다.

강남4구에서 예정된 재건축 이주물량은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들 현황을 파악해 추산한 값이다. 재건축 사업장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는 이주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 전셋값도 들쭉거리기 마련이다.

실제 반포동 한양과 잠원동 한신아파트가 지난달 재건축 착공을 위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인접 아파트 전셋값이 한 주간 최대 5000만원 가량 올랐다. 인근 반포동 삼호가든3차는 일주일 사이 전셋값이 5000만원 올랐고 잠원동 한신10·19차도 같은 기간 2000만~2500만원 가량 가격이 상승했다.

고덕주공 4단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후 이주수요가 쏟아지고 있는 강동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재건축 이주비를 받은 집주인들이 전셋집을 찾아 나서면서 상일동 고덕주공5·6·7단지 전셋값은 지난주에만 500만~2000만원 상승했다. 올해 2월을 기준으로 강남권 아파트의 전셋값은 3.3㎡당 평균 1804만원을 기록했는데 전용 84㎡를 기준으로 1년 사이 가격이 무려 4200만원 이상 올랐다.

◇전세난 '풍선효과'…강서, 경기도 전셋값도 동반상승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난 여파로 강서구는 물론 경기도 등 수도권 전셋값도 동반상승하고 있다. 전세매물을 구하지 못해 서울 외곽지역으로 이동하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12단지 모습

는 전세난민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강서 힐스테이트와 마곡지구 주변 아파트를 더해 총 1만 가구 주택이 입주하면서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였던 강서구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말 강서구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0.29%를 기록했는데 이는 강남(0.26%)과 서초구(0.20%) 변동률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이달 초에는 일주일 사이 전세가격 변동률이 0.25%를 기록하는 등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 광명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곳을 가산, 구로 디지털단지와 맞닿아 있어 직장인들이 전셋집을 많이 찾는 지역이다. 광명시

철산동 일대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3달 사이 3000만원 가까이 오르는 등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실효성' 의문…전세난 진화 역부족

이처럼 강남4구에 집중된 재건축 단지들 이주시기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세난이 서울은 물론 경기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를 진정시킬 만한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주시기 분산을 위해 관리처분인가 조정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놔지만 실제 적용된 경우가 없어 제도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장이나 도시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은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승인을 미룰 수 있다. 시는 같은 시기에 재건축 이주가 몰릴 것에 대비해 올해 1월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장을 2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보존 방안이 없어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haezung2212@news1.kr

불어터진 국수 '부동산 3법'이 뭐길래

(서울=폴리뉴스) 박광윤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 3법의 늑장 처리를 놓고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한 것이 화제다. 이에 다시 '부동산 3법'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3법도 지난해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하자면 통통 불어터진 국수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걸 먹고도 경제가 힘을 냈는데,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해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은 24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정면 비판에 나섰다. “부동산 3법은 초기에는 매매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굉장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내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경제민주화’이지 “부동산 3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2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부동산 3법에 대해 “집값을 올리는 것으로는 주거안정대책도 안 되고

서민들은 죽으라는 얘기”라며 “효과와는 강남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해 기존 부동산 3법 반대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말 통과된 부동산 3법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법으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말한다.

당시 ‘주택법 개정안’으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3년 유예됐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수를 1주택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3주택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지속돼 왔는데, 우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아파트들의 고급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일반 주택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3년 유예된 것은 어차피 재건축을 통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강남지역’ 정도만 수혜를 얻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조합원 분양주택수를 3주택까지 허용하는 것은 강남지역처럼 물량이 부족한 곳의 분양가를 오히려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해훈 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3법이 서민 주거 안정과는 동떨어진 정책으로 단기적인 투기성 수요로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정책이며, 초기 매매 활성화 효과는 인정해도 장기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친박근혜계 의원이자 새누리당의 경제통으로 불려왔다는 점에서 이번 직격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뼈 아픈 일이 됐다.

또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논란이 된 비유법은 ‘진정 불어터진 국수가 무엇이나’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며 정치적인 부메랑이 됐다.

pky@polinews.co.kr

박 대통령, '부동산 3법, 아주 통통 불어터진 국수...'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내각 중심의 강력한 정책 조정을 통해서 힘 있는 정책 추진력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수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와 4대 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3년 개혁해서 30년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호와 같이 되도록 30년 성장의 도약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등 부동산 3법을 '통통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면서 국회에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생각

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비유로 하자면 아주 통통 불어터진 국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그걸 그냥 먹고도 우리 경제가 부동산이 좀 힘을 내 갖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거래도 늘어났다"면서 "불어터지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냐"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제때에 먹일 수 있도록 좀 중요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다 힘을 합쳐서 통과를 시키고 우선 경제를 살리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함께 수석비서관 10명, 특별보좌관 단 전원이 참석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은 불참했다.

sanghwi@news1.kr

“매주 2만여명의 독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보스톤코리아 이메일 발송 서비스

–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보기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보스톤 코리아가 매주 신문 발행과 함께 이메일로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을 전세계 어디에서나 웹사이트에서 또는 지면보기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소식, 깔끔한 디자인
새로운 소식을 깔끔한 디자인으로 전해드립니다.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저희 보스톤코리아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이안 2014도 볼 수 있어
보스톤 및 미주 생활 가이드로 교육에서 의료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eBook 또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보기가 어려우시다고요?
이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세요!

픽업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스톤코리아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이메일 보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할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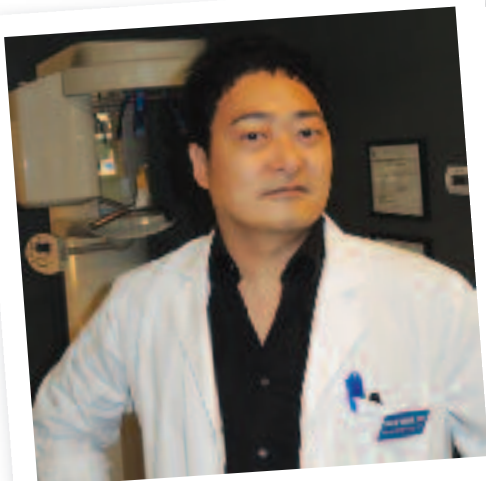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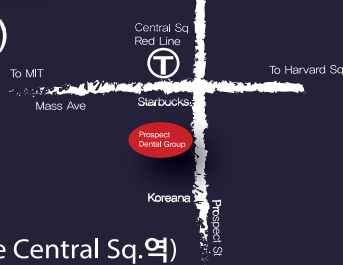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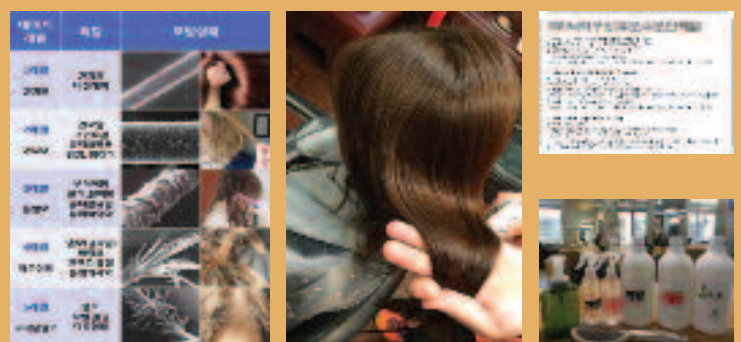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볼/여자컷 30볼/파마 70볼 부터
디지털 130볼 부터/케라틴 매직 220볼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간통죄' 62년만에 폐지...헌재 "성적 자기결정권 등 제한"

재판관 7명 위헌 의견...
"혼인제도 훼손 초래"
2명 반대 의견

2008년 10월30일 이후
처벌 확정된 5000여명
구제 가능

(서울=뉴스1) 전성무, 홍우람 기자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 241조 간통
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
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
혔다.

박한철·이진성·김창중·서기석·조
용호·김이수·강일원 등 재판관 7명이
위헌 의견,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이
합헌 의견 등을 냈다.

재판부는 "간통죄 처벌조항은 선량
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
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의무
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간통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위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회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
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
산되고 있다"며 "간통행위에 대해 국
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
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
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
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
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다면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전세
계적으로도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
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
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
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
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
체의 유지 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
치는 행위"라며 "간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돼 있
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수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간통죄의 폐지는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 의식의 하
향화를 가져오고 간통에 대한 범죄의
식을 없애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의 문
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간통죄 처벌 조항은 1953
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62년 만에 역사
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
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
고 있다.

벌금형이 없고 2년 이하의 징역형
으로만 처벌토록 해 양형이 무거운 편
이다.

그동안 간통죄에 대해서는 법이 성
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의
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헌재가 간통죄를 놓고 위헌 여부를
심판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1990
년부터 2008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가 간통죄 처벌조항을 위헌으
로 결정하면서 간통죄로 처벌받은 이
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대상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7조가 개정되
면서 제한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종
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
터 소급돼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가장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
이 난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이 확정된 이들에 한해 재심이나

형사보상 절차가 허용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08년 11월
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죄로 기소된
이들은 총 5466명이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2008년
10월30일까지 간통죄로 처벌받은 이
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다.

1953년부터 지금까지 간통죄로 처
벌받은 사람들은 대략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앞서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은 헌
재에 간통죄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
다.

lennon@news1.kr

자원외교 국조...진실게임만 난무, 책임은 누가?

다섯 차례 기관보고

마무리한 자원외교 국조특위
'최경환 책임론' 공방만

내부수익률·자산가치 조작
드러난 것은 성과
지난해 국감과 다를바
없었던 점은 한계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국
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
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
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가 25일
기관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국조특위도 다른 국정조사
때와 같이 여야의 날선 대치로 점철
되고 있다. 간혹 파행도 빚어지면서
어김없이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
되는 양상이다. 국조 무용론이 또다

시 고개를 드는 이유다.

사실 이번 국조 초반 분위기를 살
린 장본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였
다. 이 전 대통령은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을 통해 자원외교 국조를 국가
정책에 대한 선부른 재단이라고 정
면 비판하면서 국조에 대한 국민들
의 기대를 키웠다.

이런 배경에서인지 국조 기관보고
를 통해 여러 성과도 나왔다. 대표적
으로 실패한 사례로 분류되는 캐나
다 하베스트사(社) '날'(NARL)과
관련해서는 한국석유공사가 처음부
터 인수를 계획하지 않았었다는 점
과 뒤늦게 인수를 결정하면서 무리
하게 추진했다는 점이 명확해 졌다.

또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08년 이
후 15개의 사업 가운데 10개의 사업
에서 IRR(내부수익률)을 조작해 이
사회에 보고했다는 점도 밝혀졌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에는 현
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의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을 추진하
면서 600억원의 적자인 자산가치를
2000억원 흑자로 조작한 점도 도마위

에 올랐다.

그럼에도 이번 기관보고가 아쉬운
이유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다를 바
없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판박이 국
정조사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은 국정조
사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날' 인
수 진실공방으로 흐른데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최대 쟁점은
하베스트사 '날' 인수였는데 당시 야
당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수를) 부인하지 않은 건 정
확하다. (최 부총리가 허락한)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답한 것을 들
어 최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이번 국조 기관보고에서도 한국석
유공사가 '날'을 인수할 당시 최 부총
리가 관여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
으로 다뤄졌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주장을 부인했고, 기관보고는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흘렀다.

최 부총리는 이번 기관보고에서도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최 부총리는
"(강 사장과 만난 것은) 5분 내외로

기억한다"면서 "강 사장이 하베스트
를 인수하는데 '날'을 포함하지 않으
면 팔지 않으려 한다는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알려왔고 그래서 나는 '정
유 부분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잘 검
토해봐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주
장했다.

진실공방은 기관보고 마지막 날인
25일에도 계속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기관보고에서는 이명박 정부 해외자
원개발 총회수율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야당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
이 사업 투자 전에 실시하는 총회수
율의 개념을 마음대로 바꿔 사용했
고 수치도 조작했다고 주장한 반면,
윤 장관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았
다고 맞서면서 진실공방을 벌였다.

기관보고가 지루한 진실공방의 장
으로 변했지만 청문회의 기대감을
높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
이었다.

국조특위는 4월초 에너지 관련 공
기업 3사 전직 사장과 임원들을 상대
로 청문회를 열 예정인데 이 청문회

에는 강 전 사장이 출석할 전망이다.

기관보고 내내 펼쳐졌던 진실게임
이 청문회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주
목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의 분발도
촉구된다. 야당의 입장에서 기관보
고는 이른바 '한 방'이 아쉬운 기관보
고였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지
속적으로 요구했던 국정조사지만 새
롭게 제시되는 의혹은 없었다. 또 강
하게 제기했던 권력형 비리와 관련
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국정조사장이 다소 정치적 공방으
로 흐른데에는 정부의 답변 태도도
한 몫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조사 위
원들의 발언에 끼어들거나 "어이없
다"고 답변을 하는 등 정쟁을 유도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정부에서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사
업과 관련해 아무도 책임지려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도 이번 기관보
고에서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sanghwi@y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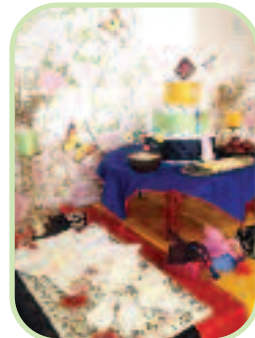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품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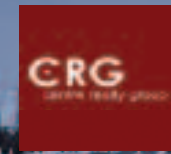






- 품격을 더하는 화점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춤탈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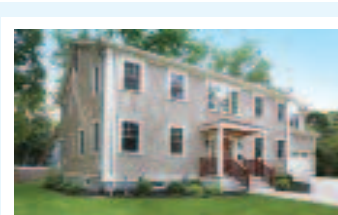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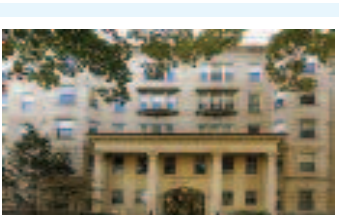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Somerville 5 Family \$ 999,900 연수입 \$78900, 주거 면적 3072 Sq. 업데이트가 많이 된집. (Anderson window, hard oak floors, granite counters, stainless appliances, Central Air Conditioning and in unit laundry), 경쟁력 있는 위치.	 Brookline 2 Family \$ 1,100,000 Tax\$8490, 주거면적2366sq, 대지면적4892sq, 좋은 학군, 잘 관리 된집, Green line D 근처, Rt 9. 최상의 위치. 물 근접, 5 year Roof, 업데이트 heating system, 창문	 Newton 2 Family \$749,900 2가구 세들어 있음, 총 수입 약 55,000, 대지 면적 6555 sq.ft, 년Tax \$5664	 Newton \$1,300,000 2가구입주, 연수입\$84,500, 대지면적9229sq ft. 업데이트 많이 되어 있음. 렌트하기 좋은 위치(T 근처), 보스턴칼리지	 Newton \$1,999,000 2013년 새집. 최고 학군, 주거면적 5857sq ft. 대지면적 10990 sq ft. 방5개, 화장실5.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Newton \$999,000 2013년 새집, 방 4개 화장실 3개, 좋은 학군 보기도문 새집 가격, 주거 면적 3850sq ft, 대지 면적8700 sq ft.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Reading \$ 365,000 2013 새 콘도 분양.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렌트비보다 저렴한 페이먼트, 방2, 화장실2개, 주거면적 1300sq ft. 30만불대는 한 유닛 남았음. 95 고속도로 근처, Garage Parking	 Burlington \$ 589,000 2013년 새집. 방3개, 화장실 2.5개, 주거 면적 2000sq ft, 대지 면적 4775 sq ft. H mart 상권 근처.	 Boston Fenway \$ 364,000 방 1개, 화장실1개, 주거면적 576sq ft, 콘도 fee \$ 298 (Heat, Hot water포함) 보스톤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1,390,000 2013년 새집 최고의 학군 방4개 화장실 4.5개 주거면적 4000sq ft. 대지면적 17548sq ft. 마루 바닥, 최고의 학군, 편리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입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답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ushi.com

사시미:
싱싱한 광어와 혼마구로 참치, 방어, 헌류나,
레드스내피, 생굴과 생우디, 한치와무침과 매운탕까지

스시와 롤:
싱싱광어, 혼마구로 참치, 스크티시 셀몬, 하마찌,
장어, 새우, 오징어 등등

**사시미 폭코스
김밥**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일스폰에 위치한
저희 오빠스시에서
싱싱하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Korean Presbyterian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틀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 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 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8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보스턴 남부지역 보스턴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엔티비(EntiTV)가 티브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TV는 사랑을 싣고

발렌타인데이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 29.99
2월 28일까지(2년 약정시)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CN, Olive, OCN

The Best OnDemand, TBO

“보스턴에는 보스톤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턴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건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bostonkorean@hotmail.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눈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나요?

눈꺼풀 수술을 성형수술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자격증 있는 안과 의사에 맡기십시오

- 기능적 눈꺼풀 수술 (줄린눈, 눈 찌르는 속눈썹 교정)
- 성형 눈꺼풀 (쌍꺼풀 수술)
- 보톡스, 레스틀린, 및 기타 주입 성형물

나영 그레이스 리 (Nahyoung Grace Lee), M.D.

그레이스 리 박사는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USC 도헤니 눈 연구소에서
수련의를 지냈습니다.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에 능통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Boston and Waltham Locations • 617.573.5550 • MassEyeAndEar.org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단기연수인 비자 (H-3)
주재원 비자 (L-1)
특기자 비자 (O-1, P-1)
취업이민 (NW, EB-1, EB-2, EB-3)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lwyer.com

NBA 파워랭킹 TOP 4, 셀틱스는 어디에?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19일에 NBA 시즌 중 트레이드가 종료되었다. 이제 앞으로 남은 한달 반 정도의 정규시즌 기간 동안 살아남는 팀만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된다.

올해는 유달리 트레이드 데드라인 막바지에 선수 이동이 많았다. ESPN에 따르면 트레이드 마감일인 19일에만 37명의 선수가 트레이드 되었으며, 이는 NBA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다.

트레이드를 마치고 시즌 후반기에 접어든 NBA 상위 4팀에 대해 살펴보자.

4위 Memphis Grizzlies

IN: nobody

OUT: nobody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시즌 초반 트레이드로 이득을 본 팀이다. 이미 원하는 것을 다 얻은 그리즐리스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맞춰서 선수 구성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그리즐리스는 이미 한 달 전에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셀틱스로부터 제프 그린을 영입했다. 41승 15패로 웨스턴 컨퍼런스 승률 2위에 올라 있는 그리즐리스는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3위 Cleveland Cavaliers

IN: nobody

OUT: nobody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역시 시즌 초에 발 빠르게 움직인 덕에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맞춰서 선수를 이동시키지는 않았다. 캐벌리어스는 1월 초에 필요한 선수들을 충원하여 주전 선수들의 구성을 마쳤다.

36승 22패로 이스턴 컨퍼런스 승률 3위 랭크되어 있는 캐벌리어스는 이스턴 컨퍼런스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 남아 있는 정규 시즌 스케줄도 캐벌리어스에게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다.

2위 Atlanta Hawks

IN: nobody

OUT: nobody

애틀란타 시호크스가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은 이유는 자명하다. 45승 12패. 호크스는 NBA 전체 30개 팀 중에서 가장 승수가 높다.

이스턴 컨퍼런스에서 승률 1위를 달리고 있고, NBA 올스타 경기에 시호크스의 주전 선수 중 4명이 뽑혔다. 지금의 시호크스는 약점이 가장 적은 팀이다.

1위 Golden State Warriors

IN: nobody

OUT: nobody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역시 트레



이번 주부터 셀틱스 유니폼을 입게 된 아이제아 토마스

이드 데드라인이라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워리어스는 44승 10패로 웨스턴 컨퍼런스 1위를 달리고 있다. 게다가 NBA 전체 팀 중 공격에서 2위, 수비에서 1위를 기록하며 다른 팀들을 압도하고 있다.

워리어스에게 이번 시즌은 한 가지 질문만 남을 것이다. 시즌 챔피언을 거머쥐느냐, 아니면 챔피언 타이틀 없이 시즌을 끝내느냐.

21위 Boston Celtics

IN: Isaiah Thomas, Jonas Jerebko, Luigi Datome

OUT: Marcus Thornton, Tayschaun Prince

보스턴 셀틱스의 트레이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피닉스 선즈로부터 아이제아 토마스를 영입한 것이다.

셀틱스는 팀 내에서 가장 공헌도가 높은 선수였던 포인트 가드 라존 론도

를 떠나 보내고, 론도의 빈 자리를 루키 가드가 맡고 있었다. 토마스의 영입으로 셀틱스는 가드의 선수층이 두터워졌으며 플레이오프 경쟁에도 뛰어 들 수 있게 되었다.

셀틱스는 이번 시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완전히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

jsi@bostonkorea.com

오티스 "타석 벗어나지 말라고? 벌금 내겠다"

오티스 "생각 좀 하고 치게 해다오"

메이저리그 경기시간

단축 방안에 불만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빅파피' 데이비드 오티스(40·보스턴 레드삭스)가 미국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올 시즌부터 시행하는 경기 시간 단축 방안(baseball's new pace of play rules)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 ESPN은 26일 "오티스가 MLB 사무국의 스피드업 규정에 확실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오티스가 불만을 표한 규정은 '타자가 한 번 타석에 들어서면 타격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한 한 발을 타석에 들여놔야 한다'는 조항이다.

오티스는 "이것이 정말 새로운 규정인가. 정말 한심하다"고 비판하며

"투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타자는 투수의 공을 한 번 보고, 타석에서 벗어나 다음 공을 대비한다. 이 규정을 실제로 적용하면 타자는 다음 공에 대해 생각할 틈이 없기 때문에 타자가 아웃될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게 오티스의 생각이다.

오티스는 "나는 야구 본연의 재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규정을 무시하고 내가 하던 대로 타석을 벗어나 다음 공을 대비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MLB 사무국은 스피드업 규정을 어기는 선수에게 벌금 500달러를 부과하고 이를 자선 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다.

오티스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벌금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오티스는 "아마도 올 시즌 나는 금전적인 손해를 볼 것"이라며 "벌금을 내더라도 내가 원하는 타격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티스는 "MLB 사무국에 '선수의 의견을 듣거나 했나'라고 묻고 싶다"며 "MLB 사무국은 선수의 의견을



보스턴 레드삭스팀의 데이비드 오티스

문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무시했다"고 사무국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MLB 사무국은 지난해 9이닝 기준 한 경기 평균 소요 시간이 3시간 2분으로 늘어나자 경기시간 단축 방안 마련에 힘썼다.

사무국은 "선수의 잘못된 습관이 경기 시간을 늘린다"고 지적하며 타자가 양발을 모두 타석에서 빼는 동작을 금지하고, 공수교대 때 투수의

연습 투구를 30초로 제한하는 등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현장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돈 매팅리 감독은 "MLB 사무국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오티스는 반기를 들었다.

KBO(한국야구위원회)도 경기시간 단축을 위한 규정 다섯 가지를 마련했고, 이번 시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오티스가 불만을 드러낸 다섯 가

지 규정 중 '타자가 타석에 들어선 순간부터는 최소한 한 발을 배터 박스 안에 두는 조항'도 있다.

다만, KBO는 벌금이 아닌 '투수에게 투구를 지시해 스트라이크를 선언'하는 벌칙을 준다.

KBO 심판위원들은 1월 새 규정을 숙지했고 2월 초부터 각 구단 스프링캠프 현장으로 이동해 선수단에 새 규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jiks79@yna.co.kr

휴람제휴
이벤트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서울메디케어는 연면적 1000평에 달하는
서부권역최고 최대수준의 **대학병원급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서울메디케어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검진 프로그램
(수면대장내시경 포함 시 10만원 추가)

종류	남자	여자
휴람기본	62만원 → 47만원	78만원 → 59만원
휴람정밀	120만원 → 91만원	138만원 → 103만원
휴람VVIP	304만원 → 228만원	329만원 → 240만원

SEOUL MEDICARE [검진시간 안내]
평일 : 오전 8시 ~ 오후 5시 · 토요일 : 오전 8시 ~ 오후 1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2시

휴람 제휴 이벤트

루트모발 이식센타

6명의 모발이식 전문의료진
4개의 모발이식 전용수술실

휴람제휴 해외동포
‘특별이벤트’

모발이식 5만원씩 할인
수술후 세정제 3만5천원 Free
생각률을 도와주는 EGF가 3만원 Free

절 개	비 용	비절개	비 용	절개+비절개	비 용
4000모	290만원	2000모	400만원	7000모	790만원
5000모	390만원	2500모	450만원	8000모	990만원
		3000모	500만원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의
이벤트



오스템 임플란트

~~150만원~~
120만원

무식제 라미네이트

~~80만원~~
60만원

오스템 미백 1회

20만원
+1회 제공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새미치과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대표원장 이두형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동부병원 치과 과장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외래교수
-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정회원
- 대한구강보존학회 정회원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주치료 심미보철 예방치료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에띠끄 에스테틱 특별할인

Professional Skin
Care System



에띠끄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럭셔리인테리어와 고급관리
1:1 전문관리와 프라이빗 룸
동안 미소 스킨 케어 마사지

이태리 최상의 브랜드 사용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관리사

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19만원~~ → **15만원**

전신 홀리스틱 아로마 케어

- 아로마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2만원~~ → **26만원**

스페셜 힐링 스칼프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20만원~~ → **16만원**

전신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8만원~~ → **30만원**

스페셜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25만원~~ → **20만원**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은 있다.
에띠끄만의 특별한 관리로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춰보세요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이메일 haramceo@ha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전국 70여개의 사무실 / 50여 개국 다국적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4,800
Sharon, MA
3 Beds, 2.5 Baths, 1872sf.
잘 관리된 좋은 구조의 집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Janice Lee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215 sf.
넓은 공간, 아름다운 실내 구조
살기 좋고 우수한 학군
이현주 401-935-3397



\$725,000
Brookline, MA
2 Beds, 2 Baths, 1523 sf.
Near BU, Coolidge Corner
Sunny 2 bedrooms
Jason Jeon 617-642-5670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359,000
Billerica, MA
3 beds, 2.5 baths, 2694 sf.
Near Commuter Rail
Nice neighborhood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한국프렌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줄 송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Restaurant



\$550,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Established in 1989
Great potential to grow
Kwang O. Kim 617-792-861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690,0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eauty Service



\$100,000
Newton, MA
비즈니스에 좋은 위치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아파트, 콘도 단지 주변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50,000
Peabody, MA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Full Liquor License
Jason Jeon 617-642-5670

Restaurant



\$500,000
보스톤 인근
일식당, 매상 \$800K+
Beer&Wine License
Jason Jeon 617-642-5670

Coin Laundry



\$94,9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Dry Cleaner



\$25,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located in strip mall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50,000
보스톤 인근
일식당, 매상 \$600K+
Beer&Wine License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우스터 병원 건물 매매

\$1,000,000
6200 sf. 주차장 포함
UMASS 병원 근처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ushi.com

사시미:
상징한 생어와 훈마구로 참치, 방어, 흰투나, 레드스네일, 생굴과 생우니, 한치회무침과 배운장까지

스시와 롤:
상징생어, 훈마구로 참치, 스크터시 셀론, 학마제, 장어, 새우, 오징어 등등

**사시미 롤코스
김밥**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얼스톤에 위치한
저희 오빠스시에서
상징하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1. No.9 February 27 2015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한밤중의 야식은 카유가(Kayuga)가 책임진다

카유가(Kayuga)

업소탐방 275

1030 Commonwealth Avenue, Boston, MA 02215
617-566-8888

엔티비 8기 150 플레이(750 Play)로 새롭게 탄생하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TV는 사랑을 싣고

발렌타인데이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 29.99
2월 28일까지(2년 약정시)

문의 및 예약
보스톤 3사 TV 시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live OCN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밤이 깊었는데 괜히 배가 출출한 것도 같고, 매콤한 야식이 눈 앞에 아른거릴 때는 카유가(Kayuga) 떠올리면 되겠다. 닭뿔집, 모듬편육, 불닭발, 곰창 김치찌개 등의 다양한 야식을 새벽 두시까지 즐길 수 있으며 배달 주문도 언제든지 환영이다.

커먼웰스 애비뉴에 위치한 카유가는 2003년부터 자리를 지켜왔다. 디너 때는 스시나 롤 등을 찾는 외국인 손님들이 많지만 밤에는 그야말로 한인들의 ‘야식 아지트’가 된다. 술과 함께 곁들일 안주를 찾는 한인 손님들을 위한 한국식 안주 메뉴판이 따로 있을 정도다.

카유가의 왕수경 대표는 “새벽 2시까지 영업하기 때문에 야식이나 안주감을 찾는 학생들이 밤에 많이 온다”며 “특히 닭뿔집은 보스톤에서 최고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자랑했다.

매콤한 떡볶이와 순대가 차례로 올라왔다. 왕씨의 말에 따르면 떡볶이는 최근 들어 비빔밥이나 불고기만큼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다. 한인들의 인기 메뉴 중 하나인 순대는 떡볶이와 뽕레야 뽕수 없는 짝궁으로 역시 떡볶이 소스에 꼭 찍어 먹어야 제맛이다.

한편, 부산 일부에서는 순대를 찜장에 찍어 먹는다고 한다. “새로운 맛에 자꾸 손이 간다”는 왕씨는 아삭한 풋고추와 찜장을 순대와 함께 테이블에 올린다. 처음 맛보는 순대와 찜장의 묘한 어울림이 썩 괜찮다. 하지만 아직 찜장이 생소한 손님들을 위해 소금장이 함께 준비된다.

이어 여성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호타테 호카이야키(Hotate Hokkaiyaki)가 먹음직스럽게 등장했다. 가리비 껍데기 위에 관자, 일본 맛살, 팽이버섯, 표고버섯 등을 매콤한 마요네즈 소스와 함께 요리한 에피타이저다.

드디어 대망의 편육모듬이 모습을 드러냈다. 달콤짭조름한 간장 소스에 조리된 소고기 사태와 삼겹살이 파무침 샐러드와 함께 올라온다. 졸깃하면서 도 부드러운 편육이 입에서 사르르 녹는다. 곁들여 먹을 수 있는 파무침 샐러드는 보쌈의 김치 곁들이 역할을 한다. 안주감으로 딱이겠다.

한편, 쌀쌀한 겨울철에 어울리는 갈비탕과 매운 갈비탕, 사골 도가니탕이 카유가의 새로운 메뉴로 출시됐다. 푸짐한 한 끼 식사로 커다란 갈비가 양껏 들어있는 얼큰한 매운 갈비탕이나 진한 사골 도가니탕을 추천한다.

이외에도 한인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는 남양도시락이다. 양철 도시락에 담긴 소박하고 정갈한 밑반찬은 어머니가 해준 집밥을 생각나게 한다. 카유가의 영업시간은 오후 3시 30분부터 새벽 2시까지다.

dyoo9146@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겠습니까?
주일에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임 용 순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1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617)285-887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ART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턴코리아
BOSTON KOREA . c o m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F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베이어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콜/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웨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고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채자랑회(정신교향악회)	978-407-7554
국채자랑회(정신교향악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대사추세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신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향악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체(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H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알한인교회	978-244-0691
백성톤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톤 새로운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산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안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아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씨 밴앨교회	978-274-2369
엠펙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펙스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십프린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성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영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보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잔치 / 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승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샬롱	617-206-4560
뷰티룸 헤어샬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Bl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샬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육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트라치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워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메디칼(의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란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퍼스트초이스덴탈그룹	781-273-8636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랜트	617-489-1470
전문치과	978-23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	--------------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미래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이민환 보험	781-325-3406
조충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초이스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	--------------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배드포드지역
딜리버리하실 분 구합니다.
T. 781-275-7600, C. 781-801-6896

BU근처 가유가에서 캐시어,
딜리버리 드라이버, 웨이추레스 구함.
T. 781-888-8287

Walpole
세탁소 카운터 구함.
T. 781-771-7069

산모도우미 찾으시는 분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자격증 있음.
T. 339-227-9683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일식당 매매 15K - 18K

한식 겸하면 최고 조건, 독점지역
저렴한렌트, 알차고 꾸준한 매상
두차례 영주권 내준 식당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TEL 603-557-3123

세탁소판매, 스프링필드 근방
공장과 Drop, 연매상 \$700,000
T. 413-244-8347

FIXALL

바이러스 치료, 데이터 백업/복구
맥OS/윈도우/리눅스 설치/복구
각종 컴퓨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
홈 네트워크 설치
TEL 617-710-4952

N[매매]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스파
매매합니다.
성업중인 가게로 건강상의 문제로
매매코저 합니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T. 321-458-2858

N[매매]

테네시에 위치한 13년된 세탁소
월마트 쇼핑몰에 위치함
매매가 \$ 320,000, 월매상 \$ 30,000
기계가 대부분 교체되어 새장비임
렌트비 월 \$ 2,500, 면적 1,600sf
T. 931-241-0415

N[매매]

Coin Laundry용
Hot Water Heater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파실분은 연락주세요
T. 773-706-3291

N[매매]

당도가 높은 콩, 간수 뺀 천일염, 인디
안 스프링 약수를 사용한 전통식 된장,
간장을 판매합니다.
지방 한인 마켓이나 단체 주문시 도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T. 678-764-0331, 678-656-9977

N[지압사구인]

플로리다 지역 잭슨빌
교포환영,숙소제공 45세 미만
T. 770-712-3973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N[구인]

마사지사 구함
숙식제공, 수입보장
안전한곳
T. 406-259-6211

N[구인]

메케닉 구함
사이딩 00명 (헬퍼,메케닉,쿠루포함)
익스테리어+인테리어 기능공우대
숙소제공, 지역(미네소타,노스다코다)
T. 651-329-3307

N[구인]

샌안토니오 초가집에서
일하실 여성분 구합니다
숙식제공되고 라이드 됩니다
T. 210-803-5194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l.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us/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김준호 거짓말 의혹, <1박2일>에도 불뚝

최면치료 방송에 진정성 논란

(서울=뉴스1) 온라인팀 = '코코엔터테인먼트 사태'를 맞은 김준호가 거짓말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출연 중인 '1박 2일'도 진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준호는 지난달 18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1박 2일'에서 최면 치료를 받았다. 당시 그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마음 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코코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의 횡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에게 시청자들은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최근 김준호가 그간 주장해온 내용이 거짓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청자들은 김준호에 실망감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1박 2일'의 진정성에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편 KBS 예능국 내부 분위기는 조심스럽다. 김준호의 하차나 프로



그램 진정성 문제 등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힘들다는 분위기다.

한편 앞서 23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코코엔터테인먼트의 회계자료, 계약서, 차용증 등 여러 서류들을 분석해 상세히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준호가 그간 주장해온 내용은 상당부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준호는 코코엔터테인먼트의 회생을 위해 개인적금을 내고, 4억원을 빌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김준호가 4억을 빌려 회사에 넣은 흔적은 그 어디

에도 없었다.

이어 해당 매체는 김준호가 30개월 동안 코코엔터의 법인카드를 월 평균 300만 원 정도 사용했으며, 김대희 역시 월 평균 100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준호 측도 25일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해명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모든 일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욕해도 늦지 않아요", "김준호는 이미 끝난 듯", "희대의 최면연기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khe45678@news1.kr

윤아 이승기, 동국대 모범커플

'공로상도 나란히'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윤아가 남자친구 이승기에 이어 졸업장과 함께 총장공로상을 받았다.

결그룹 소녀시대 윤아 24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동국대학교에서 진행된 졸업식에 참석했다. 윤아는 지난 2009년 동국대학교 예술대학에 입학한 후 6년 만에 학교를 졸업했다.

이번 윤아의 졸업이 더욱 눈길을 끄는 이유는 남자친구 이승기와 동문이

됐기 때문. 게다가 졸업식에서 공로상을 받은 것까지도 닮았다. 남자친구 이승기는 2009년 졸업 당시 총장공로상을 받았다. 윤아 역시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학교를 빛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아는 동국대학교 홍보대사로도 활동중이며 지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2011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행보를 보였다.

누리꾼들은 "윤아 이승기, 모범커플", "윤아 이승기처럼 대학원은 안 가나?", "윤아 이승기, 정말 훈훈한 커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lee1220@news1.kr



남궁민·홍진영, 홍종현·유라 커플 <우결> 동시 하차

(서울=뉴스1) 온라인뉴스팀 = 남궁민-홍진영 커플과 홍종현-유라 커플이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전격 하차한다.

MBC 예능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 제작진은 26일 "남궁민-홍진영, 홍종현-유라 두 커플의 하차는 맞지만 촬영분량에 따라 마지막 방송 날짜는 유동적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 커플은 아직 인터뷰 중이라 현재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두 커플이 동시에 들어가는 만큼 여태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해보려고 제작진 회의 중입니다"며 "다음 주 정도에 확정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홍진영과 남궁민 커플은 약 1년 동안 가상 부부생활을 해오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반면 홍종현과 유라 커플은 지난해 6월 합류해 이제 막 관계가 무르익을 타이밍에 홍종현의 열애설로 '진정성 논란'에 휩싸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남궁민-홍진영 커플 하차 아쉽다", "좀 현



실적인 애들로 캐스팅해라", "아이돌 캐스팅 결사 반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우리 결혼했어요'에 잔류하는 커플은 송재림-김소은이다

. 제작진은 이미 새로운 출연진을 섭외하기 위해 최근까지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jez875@news1.kr

베이비카라 소진 숨진 채 발견

과거 "즐겁게 사는 게 내 좌우명"

(서울=뉴스1) 온라인뉴스팀 = 베이비카라 소진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DSP 측이 안타까움을 표했다.

25일 DSP미디어 측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오늘(25일) 갑작스런 비보를 전해 들었다. 너무 안타깝다. 우선 유족들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소진은 24일 오후 2시7분께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소진이 해당 아파트 10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진은 5년 동안 DSP 미디어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며 가수의 꿈을 키워왔다.

그러던 중 소진은 지난해 케이블채널 MBC뮤직 '카라프로젝트: 더 비기닝'에서 '베이비카라'로 얼굴을 알렸다. '카라프로젝트'는 걸그룹 카라 멤버 니콜과 강지영의 탈퇴

후 카라의 새 멤버를 발탁하기 위해 열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며, 당시 허영지가 최종 발탁돼 카라에 합류했다.

당시 방송에서 소진은 "즐겁게 사는 게 제 좌우명이다. 생각해 보면 힘들고 지치고 못 견디겠고 이런 순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다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이 되더라"며 눈물을 흘린 바 있다.

소진은 이어 "그때 그랬지,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힘들더라도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다"고 고백했다.

소진은 카라 합류에 실패한 뒤 연습생 생활을 지속해오다 한달 전 DSP 미디어와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khe45678@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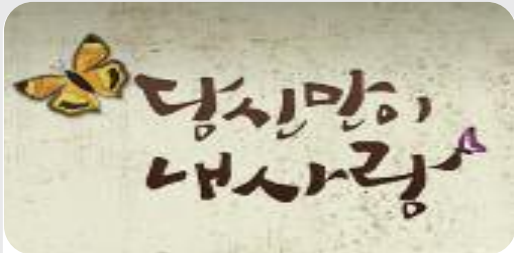
2015년 2월 9일 ~ 2월 15일



1위
MBC 주말특별기획
전설의 마녀
28.9%



2위 KBS2 주말연속극 파랑새의 집 25.4%



3위 KBS1 일일연속극 당신만이내사랑 24.4%

- | | | | |
|----|------|---------------|-------|
| 4 | MBC | 주말드라마(장미빛연인들) | 22.8% |
| 5 | KBS1 | KBS9시뉴스 | 16.8% |
| 6 | KBS2 | 일일드라마(달콤한비밀) | 16.0% |
| 7 | KBS2 | 해피선데이 | 14.7% |
| 8 | SBS | SBS월화드라마(펀치) | 14.4% |
| 9 | KBS1 | 전국노래자랑 | 14.3% |
| 10 | KBS1 | 가요무대 | 13.4% |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 | | |
|----|-----------------|---------------|
| 01 | 같은 시간 속의 너 | 나얼 |
| 02 | My Type | 제시 |
| 03 | 그냥(Just) | Zion.T, Crush |
| 04 | 또 운다 또 | 다비치 |
| 05 | 사랑은 미친짓 | 15& |
| 06 | 화 | 매드클라운 |
| 07 | 목소리 | 노을 |
| 08 | 미쳐 | 4minute |
| 09 | 위아래 | EXID |
| 10 |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 정승환 |

숫자 퍼즐 (Sudo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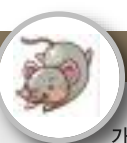
		3				1		
4			3		7			9
	6				4	5		
2		9	4				5	
8		7				9		6
	3				2	7		1
		4	7				1	
3			8		1			2
		2				3		

3월 1일 - 3월 7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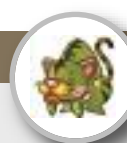
쥐띠 |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 운수: 해결책을 찾으려면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를 것입니다. ● 금전: 부경을 열어보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금전적으로 유리한 변수가 생깁니다. ● 애정: 부부의 마음이 화합하니 집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 5일 길일. 4, 7일 주의.



소띠 | 처음부터 잘해야

● 운수: 처음부터 잘해야 합니다. 튼튼하게 잘 쌓지 않은 탑은 결국 오래가지도 못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 금전: 조금만 마음을 비우세요. 괜한 욕심을 내다가는 이도 저도 아닌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리도 없냐고 속으로만 한탄하지 마세요. 믿음만한 사람을 찾아서 속내를 다 털어놓으면 편안해질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 6일 길일. 5, 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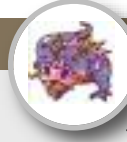
범띠 | 미리 대책을 세우고

● 운수: 내 손에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 금전: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지출할 일이 발생하거나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대책을 세우고 철저한 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 애정: 이왕에 봐줄 것이라면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어설프게 하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4, 7일 길일. 5, 6일 주의.



토끼띠 | 흐릿한 미소를 짓게 해주는

● 운수: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흐릿한 미소를 짓게 해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 금전: 투자와 관련하여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 하겠습니다. ● 애정: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싹트는 계기가 생깁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3, 4일 길일. 1, 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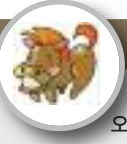
용띠 | 하루하루가 새롭고

● 운수: 좋은 사람들을 만나니 하는 일을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집니다. ● 금전: 지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한 것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일이 성사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입도 따라옵니다. ● 애정: 작은 곳에서 행복을 느끼면 하루하루가 새롭고 신나게 보낼 수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 4일 길일. 2, 5일 주의.



뱀띠 | 그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 운수: 생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쓸데없는 것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도리어 방해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그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자신의 마음만 불편해집니다. ● 애정: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밍고 자식이나 다른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 7일 길일. 3, 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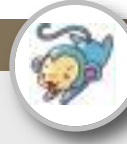
말띠 | 행복으로 가는 계단에

● 운수: 행복으로 가는 계단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훗날에 중요한 의미를 줄 것입니다. ● 금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운세이니 여러 면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입은 늘어나고 지출은 적어지겠습니다. ● 애정: 싱글은 새로운 만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서 흘러가는 시간이 무척이나 빠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3, 6일 길일. 1, 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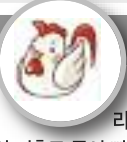
양띠 | 길게 내다보고

● 운수: 갑자기 한꺼번에 밀렸던 일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길게 내다보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린 덕에 이득을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 애정: 서로가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풀리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4, 7일 길일. 1, 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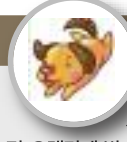
원숭이띠 | 빨리 대화로 풀어야

● 운수: 제대로 안 할 거면 처음부터 안 하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정말 똑바로 할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계약이나 거래는 시도하지 않아야 하는 때입니다. 자칫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애정: 침묵이 길어질수록 오해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심각하게 되기 전에 빨리 대화로 풀어야 하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 5일 길일. 3, 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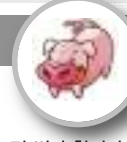
닭띠 | 급하더라도 한 걸음부터

● 운수: 갈 길은 멀고 할 일이 많은 때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걸어가야 합니다. ● 금전: 필요 이상의 지출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원가를 구입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애정: 자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 6일 길일. 1, 4일 주의.



개띠 |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 운수: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내일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될 것입니다. ● 금전: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니 매상이 증가합니다. 꼭 필요했던 것을 큰 마음먹고 구입하게 되니 기분도 좋아집니다. ● 애정: 이렇게 좋을 것을 왜 진작 하지 않았을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 7일 길일. 2, 5일 주의.



돼지띠 | 생각을 단순하게

● 운수: 생각을 단순하게 하도록 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머리만 아프고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 금전: 지출에 신경 써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오는 사람 때문에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애정: 본의 아니게 자꾸 엇나가고 있습니다. 속마음과는 다르게 하는 말과 행동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 4일 길일. 3, 6일 주의.

'삼시세끼 - 어촌편' 연장 없이 종영

후속작은 <꽃보다할배-그리스편>

(서울=뉴스1)온라인팀 = 케이블 시청률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tvN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어촌편' 이 연장방송 없이 끝난다.

한 매체는 26일 tvN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삼시세끼-어촌편'의 추가 촬영이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는 "(삼시세끼-어촌편은) 정규 8회에 스페셜 방송 1회, 총 9회로 3월 20일 막을 내린다"고 말했다.

스페셜 방송은 만재도에서의 촬영과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미공개 영상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삼시세끼-어촌편'의 후속 프로그램은 '꽃보다 할배'의 그리스편으로 정해졌다.

'꽃보다 할배' 측 관계자는 이 매체에 "방송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꽃보다 할배>가) '삼시세끼-어촌편' 후속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할 꽃보다할배 드디어 나오는구나", "삼시세끼-어촌편 연장 없어서 아쉽다", "삼시세끼-어촌편 시청률 20% 찍을 수 있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일 방송된 '삼시세끼-어촌편' 5회는 케이블, 위성, IPTV 통합에서 가구 평균 14.2%, 최고 16.3%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지상파를 포함해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종전까지 tvN 역대 최고 시청률이었던 '삼시세끼-어촌편' 4회(평균 12.8%)의 기록을 또다시 뛰어넘은 수치다.

kijez875@news1.kr



니엘 <못된 여자> 퍼포먼스, 유승옥 깜짝 출연

(서울=뉴스1) 온라인팀 = 가수 니엘이 '몸매 종결자' 유승옥과 한 무대에서 올라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25일 일산 MBC드림센터에서 진행된 '쇼 챔피언'에는 니엘이 자신의 신곡 '못된 여자' 뮤직비디오에 함께 출연한 유승옥과 함께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유승옥은 니엘의 독무 장면에 등장했다. 몸매가 돋보이는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한 유승옥은 잘룩한

허리와 볼륨감 넘치는 몸매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앞서 유승옥은 동양이 최초로 머물러 TOP5에 오르며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니엘의 첫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 '못된 여자'는 어쿠스틱 사운드와 니엘의 음색이 돋보이는 곡이다. 실력과 래퍼 도끼가 피쳐링을 해 완성도를 높였으며, 모델 유승옥이 출연한 뮤직비디오로 화제가 됐다.

kijez875@news1.kr



<순수의시대> 강한나, 청순미 물씬나는 사진 공개

(서울=뉴스1) 온라인팀 = 배우 강한나가 청순미가 넘치는 셀카를 공개했다.

강한나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으로 완성된 영화 '순수의 시대'를 본 날. '순수의 시대' 함께 고생해 주신 스태프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안상훈 감독님 최고"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강한나는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청순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강한나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와 강한

나 저렇게 보니 엄청 예쁘다", "저런 모습 보면 참 수수한데", "오 색다른 모습이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강한나가 출연한 영화 '순수의 시대'는 3월 5일 개봉한다.

'순수의 시대'는 조선 개국 7년, 왕좌의 주인을 둘러싼 왕자의 난으로 역사에 기록된 1398년 야망의 시대 한가운데 역사가 감추고자 했던



핏빛 기록을 그린 작품이다.

kijez875@news1.kr

나얼 '같은 시간 속의 너' 적수가 없다

(서울=뉴스1스포츠) 박건욱 기자 = 가수 나얼의 신곡 '같은 시간 속의 너'가 가온차트 주간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6일 가온차트측에 따르면 나얼의 '같은 시간 속의 너'는 9주차 가온차트 디지털종합차트와 스트리밍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속의 너'는 섬세한 감성과 곡 후반부의 폭발하는 가창력, 코러스만으로 꽉 찬 사운드를 만들어냈다는 평이다.

디지털종합차트 2위는 엠넷 예능프로그램인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활약중인 제시와 치타, 강남이 함께 부

른 'My Type'이 차지했다.

3위와 4위에는 각각 자이언티(Zion.T) & 크러쉬(CRUSH)의 '그냥'과 다비치의 '또 운다 또'가 이름을 올렸다.

kun1112@news1.kr



천지보살

운명
사주
궁합
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 앤 맵



이제 미국과 중국 고객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타겟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전격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내년 2월 발간하여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매출을 한단계 높여드릴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선정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베스트 업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안 고객들을 한국 업소로 불러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선택이 내년 매출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턴 한인 야구리그 2015 신입선수 모집 !

The 2015 BKBL Draft is set for Saturday, February 28th
Beginners to Advance level Welcome to tryout~



일시 : 2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BostonKBL.info

신영의 세상 스케치

487회

'절대(絶對)'라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닌 절대자의 몫은 아닐까

절대(絶對)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다면 그 무엇에도 의존, 제약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 무엇에 상대하여 견줄 만한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가끔 무엇인가 나 자신이 정말 하기 싫거나 하기 싫은 일에 대한 고집도 아닌 아집의 합리화를 위한 한 방법의 수단에 '절대'라는 단어를 찾아 쓰지 않았나 싶다. 예를 들어 삶에서 생각지 않고 툭~ 하고 던졌던 말 가운데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나는 절대 그렇게는 안 할 거야!' 등.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닌 듯 싶으나 참으로 많은 삶의 모양과 색깔에 진하게 베어진 말이었다.

너무도 이기적인 생각으로부터의 시작이 아니던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눈곱만치도 없고 나 자신만 챙기려는 너무도 이기적인 욕심스런 마음의 시작에서의 일인 것이다. 나에게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당당함 내지는 자만감이 불러들인 이기적인 마음에서의 시작인 것이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자만이 섞인 생각인 것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그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겠는가. 자신이 열심을 내어 계획하고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 말이다.

그저, 오늘을 살면서 감사하다는 고백만이 우리가 절대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삶도 사랑도 모두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네 인생이지 않던가. 삶 속에서 무심히 흘러보내는 듯 싶으나 나를 비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 속의 허욕을 버리고 자신을 자연스러움에 내어놓고 씻기고 닦이도록 놔두라는 것이다. 그렇게 씻기고 닦이다 보면 마음의 흐름을 느낄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리게 되어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일일지라도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올겨울 보스턴 지역의 폭설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눈이 내리면 며칠 후 슬슬 녹아내리고 그리고 또 한 번씩 내리면 치우기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겨울이면 받아들이던 일이었다. 그런데 올겨울은 눈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하니 하늘이 꾸물꾸물해지면 누구랄 것도 없이 다들 염려의 마음으로 있는 것이다. 우리 집 덩치 큰 녀석

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눈이 오는 것에 개의치 않고 살았다. 눈이 오면 으레 자기네들이 치우는 것이라 여겨 아빠나 엄마는 눈 치우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듯 내 입장이 그 어떤 것이나 어떤 곳에 놓여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그리고 이 녀석들이 대학 기숙사로 떠나고부터는 겨울이 오면 은근히 걱정이 이는 것이다. 눈이 오는 날이면 타운에서 길가의 눈을 치우고 가는데 몇 차례 거듭되면 그치우는 눈으로 드라이브웨이 입구가 눈덩이로 막히고 그것을 치우지 않고 놔두면 산더미처럼 쌓여 오가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몇 년을 녀석들 없이 겨울을 맞게 되니 남편이 늘 혼자 눈을 치우게 되었다. 가끔 남편 곁에서 차에 쌓여 있는 눈과 얹혀 있는 눈을 치우며 돕기 시작한 것이다. 오래된 일이지만, 아들을 놔두고 늘 눈을 치우시던 시어머님을 보며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하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사실, 25년 전 처음 결혼을 하고 시댁에서 2년 6개월을 살고 있을 때였다. 겨울에 눈이 오면 시어머님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혼자서 눈 삽을 드시고 눈을 치우시는 것이

다. 내게 비친 어머니의 모습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어머님 따라 나가서 눈을 치우기는 싫고 매느리가 되어서 집 안에 가만히 앉아 있기도 어려워 그 시간은 가시방석의 시간이었다. 그러니 내가 나가는 대신 남편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다. 잠에 취해 있는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으니 그 다음은 흰히 보이는 일이 아니던가. 그래도 끝까지 남편을 깨워 내보내고 눈을 치우러 나가지 않았었다.

'절대(絶對)'라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닌 절대자의 몫은 아닐까 싶다. 시어머님의 눈 치우시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했던 이 작은 눈을 치우는 일부터 시작해 삶에서 '절대(絶對)'란 내 몫이 아님을 절대자의 몫임을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많던가. 그렇게 '절대 안 하겠다'던 눈 치우는 일'을 올겨울 유난히 과부어졌던 보스턴의 폭설로 난생 처음 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겨울에 구입했던 눈 치우는 기계를 남편에게 차근차근 습득해 처음으로 혼자 드라이브웨이 입구에 쌓인 눈을 시원하게 치우는데 가슴이 펴 뚫리는 그 기분 '내가 절대 누린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한담객설閑談客說: 세월은 가고 사진은 남는 것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보스톤코리아 공모 눈썹사진을 봤다. 일등상을 받은 사진이 도드라졌다. 아마추어인 내가 봐도 흠잡을 수 없었던 거다. 우산을 쓴 인물의 뒷모습에 내 눈길이 박혔다. 사람모습이 있기에 눈덮힌 나무와 길거리가 그닥 황량하지 않았던 거다. 바람이 불고 있던가.

'세월이 가면 사진만 남는다' 는 건 내 아내의 사진철학이다. 미국에 오자마자 일게다. 아직 우리 부부는 신혼이었다. 없는 살림에 카메라부터 장만했다. 수백불을 투자했다. 아파트 두달치 렌트비였다. 새로 장만한 카메라를 들고 필름을 챙겨 놀이공원에 갔다. 출사出寫라 해야겠다. 사진이 주인공지, 놀이가 종從인지. 사진이 오히려 잡이 되

었다. 놀이는 뒷전이었던 거다. 열심히 정성과 노력을 다해 사진을 찍었다. 이품에 저포즈 취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 24장짜리 필름이 분명히, 계속 찍히는 거다. 사진 24장을 찍고 나면, 레버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현대, 걸리는 느낌이 없었다. 필름은 서른 다섯장을 넘어서고 있었다. 아차 싶었다. 중대한 문제와 오류가 발생했던 거다.

아내에게 했던 웅색한 변명이다.
- 사진기에 문제가 있다. (내 실수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사진이 너무 많이 찍힌다. 사진기 뒷뚜껑을 열어 확인해야 한다.
- 필름이 제대로 감기고 있다면, 찍은 사진

은 전부 빛을 받을테니 허당이 된다. 그래도 열어봐야 한다.

사진기 뒷뚜껑을 열었다. 사진기 뚜껑을 열며, 아내의 뚜껑도 열렸다. 아뿔사, 필름이 걸리지 않았고, 감기지 않았던 거다. 그저 공회전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필름은 있으되, 필름없이 사진을 찍은 셈이다. 온갖 폼 다잡고 말이다. 그날 밤, 나는 저녁밥을 굶었다. 밥이 있어도, 먹을 수 없었다. 입안은 무지 갈갈했다. 다시 가지는 감언甘言도 통하지 않았다. 돌아누운 아내를 돌이킬 수 없었던 거다. 덤병대는 신랑을 믿는 게 잘못이었다. 돌아누우며 던진 아내의 한마디. '사진이 없다면, 가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

진이 없다면, 그 행위 자체는 원천무효다.'

다른 사진을 봤다. 윤동주를 기리는 음악회 포스터에 실린 사진이다. 전에 본 적이 있던 사진인데, 장준하 선생, 문익환 목사, 윤동주 시인, 정일권 총리. 이런 사진도 드물게다. 함경도 광명학교 시절, 동창 친구들 사진이라 했던가. 참, 문익환 목사님, 젊은 시절 모습이 모던해 보인다. 안경이 패션너블하다. 세월은 갈진대, 사진은 남아 그 시대를 증거한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고린도 전서 7:31)

Hanca Education Center
한카교육원 교육프로그램

* 한카교육원은 간이식당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멀티미디어룸을 포함
9 개의 강의실을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캐나다 최고의 교육도시
문화중심 도시 몬트리올!!
세계 최대 이중 언어 도시
몬트리올!!

북미의 파리, 몬트리올에서 불어공부하자 !

몬트리올 유학은

- 불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환경에서 수준높은 교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한카교육원의 유학프로그램은 북미한인언론인협회(KAFA)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몬트리올 유학 프로그램의 특징



초중고 불어학교 / 영어학교 조기유학

- 불어학교 / 영어학교 또는 영.불어 통합학교 중 선택
- 숙소비, 학원, 학비, 홈스테이 비용 포함 관리 유학 연간 \$39,000(CAD)

불어/영어 단기유학

- 현지 공립학교에서 교육



불어 & 영어 여름 캠프 2015 June

- 몬트리올의 여름을 즐기며 배우는 불어







성인 불어/영어 직업교육(이후 이민가능)

- 부모 유학비자로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 교육가능(EMS 교육청)

성인 불어/영어 연수

- 불어 교육청 / Language school / etc.

McGill University 입학준비반

- 세계 10대 대학, 저렴한 생활비와 학비








카톡으로 빠르게 상담하세요
ID : hanca3333

전통의 힘!! 새로운 힘!! 한카 교육원에 전통과 청신함으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카교육원에서는 조기유학, 영어, 불어, 수학, TEFaQ 등 최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33 Boul. Cavendish Suite 100, Montréal Québec, Canada H4B 2M5
한카 교육원 http://hancastudy.com

 **CÉH HEC** École de Langues/Mathématiques
Language/Mathematic school
tel: 1.514. 600.3444
070.4498.1106
hancastudy@gmail.com



백성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2015년에 개정되는 부동산법 내용

매년 11월이면 부동산 업계는 내년도에 대한 준비로 매우 바쁘게 움직인다. 특히 각종 부동산 법률 개정으로 에이전트들은 현업 이외에 여러가지 교육으로 분주하기 일쑤다. 2015년부터 개정되거나 추가되는 부동산 관련 내용이 있어서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모든 부동산 문서는 클로징이 된 일로부터 3년 동안 브로커가 보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 폰을 통한 통신의 발달로 텍스트, 인스턴트 메시지, 트위터 같은 의사소통을 보관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란이 그동안 있었다.

가령 텍스트를 통한 에이전트 간의 컨펌이나 확증 같은 것들도 보관해야 되는지 여부가 그렇다. 하지만 아직은 이런 의사소통들은 문서 형태든지 파일 형태든지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메일의 경우에, 분명하게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메일에 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데, 나중에는 보관하도록 법이 바뀔 것 같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또한 주목할만한 법 추가 개정은 상업용

부동산 매매 중 에이전트의 Agency Relationship에 대한 디스클로저다.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시에는 에이전트가 리스팅을 받거나 오퍼를 쓸때, 또는 1년 이상의 주택의 렌트를 놓을 때, 에이전트들은 셀러와 바이어에게 각각 Agency Relationship Disclosure를 반드시하고 사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택 매매 뿐 아니라 상업용 거래에서도 에이전트로서 Agency Relationship Disclosure에 사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여기서 상업용 부동산이란 빈 땅, 상가, 5 유닛 이상 아파트, 산업용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며, 역시 5 유닛 이상 주택의 1년 이상 리스일 경우에도 Agency Relationship Disclosure를 받아야 한다. 에이전트는 라이선스가 있는 직업군에 속해 있어서 고객에 대한 수준 높은 인격과 Fiduciary Duty(신뢰와 충성)를 요구된다. 이런 에이전트와 고객 간의 관계가 상업용 부동산에도 적용되도록 확장한 법률 개정이다.

그리고 그동안 Home Owners Association에 있는 주택 매매의 경우 HOA 서류 비용에 문제가 있었다. 에스스로 중에 HOA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제공하는 문서비용이 생

각보다 비싸서 그동안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CC and R, By-Law, Budget Report, Board of Director's 회의록, Insurance certificate등등 많은 서류를 묶음으로 제공을 했는데 이제는 각각 문서들의 가격을 제시하고 셀러가 필요한 서류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 없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이 비용을 셀러가 지출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전에는 바이어가 에스스로에 디파짓한 금액에서 선지출하여 문서 비용을 충당한 다음 에스스로 종결시 셀러가 지불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에스스로중에 셀러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서 에스스로에 들어 갈 경우 셀러가 에스스로에 해당 비용을 디파짓해서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만약 에스스로가 중간에 취소가 된다면 이 비용중 상당한 부분을 셀러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마지막으로 카운티 Documentary Tax 금액을 이 텍스에 관련된 모든 문서에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전에는 별도의 문서에 이 텍스 금액을 적도록 해서 셀러가 판매 가격을 비밀에 부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서류에 카운티 Documentary Tax를 적어야 한다.

2015년 부동산 마켓은 무지 밝아 보인다. 아마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듯 하다. 아직까지 낮은 이자율과 Supply 이가 Demand 보다 아주 낮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70 태권도와 김치는 우리 고유의 것인가?(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대한당수도 청도관 제1회고문회 大韓唐手道 靑濤館 第一回顧問會’였다. 이 회의에 초대된 면면들을 살펴보면 유화청柳和靑(미창사장米倉社長), 손덕성孫德成(청도관 관장), 이형근李亨根(연합참모총장, 육군대장), 조경규趙瓊奎(국회부의장), 정대천丁大天(민의원), 한창완韓昌完(정치신문 사장), 장정록張景錄(정치신문주간), 홍순호洪淳浩(공익통상부사장), 고광래高光來(동아일보사주간), 현종명玄鐘明(청도관 사범) 등 10명이었다. 우리의 고유 무술인 태권과 비슷한 음의 무술명을 작명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명칭이 오갔다고 하지만 최흥희가 지은 태권도가 최종으로 채택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참석자가 제안하여 이승만의 친필 휘호인 ‘태권도’를 받으면서 태권도란 명칭에 권위를 부여 받음과 함께 공식적으로 탄생되었다. ‘태권도’라고 불리는 무도의 역사는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태권도는 전세계 200여국에서 8천만이 수련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무도이며 우리나라 말로 수련되는 우리의 무도이다.

대통령의 재가 의견에 관한 문헌과 전언이 좀 구구하다.

‘태권도 현대사(강원식, 이경명 공저)’에 보면 “이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태권도란

말을 승인했다. 그런데 조경규 국회 부의장이 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자고 제안하는 바람에 경무대에 회신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회신은 ‘태권’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라는 것이었다. 그 후 2차 명칭 위원회가 소집되었고 몇 달 후 대통령이 친필로 ‘태권도’라는 휘호를 내림으로써 명칭은 확정되었다. 바로 이날이 태권도의 탄생일로 ‘태권도의 날’이 되었다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김용옥의 ‘태권도철학의 구성원리’에 보면 〈유화청 왈 “나는 최흥희 장군이 제안한 태권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무도에 관한 명칭을 제정하는데 국가원수인 이승만 박사의 승인을 얻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명칭을 작명한 최흥희 자신이 쓴 ‘태권도교서’에 보면 “1955년에는 대전에 다 제3관구를 창설하여 군대와 일반에게 태권도보를 이루었다. 그해 4월 11일 사계의 조예있는 인사와 사학가 그리고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제의된 여러가지 명칭중 저자가 제안한 태권 두자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이때부터 당수, 공수, 권법, 태권 등등 구구각각으로 불리워오던 명칭을 태

권도라는 이름으로 통일시킨 해로 저자의 일생을 통해 가장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위의 ‘태권도 현대사’에 나오는 ‘태권도의 날’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태권도’ 휘호를 내린 날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현재 기념하고 있는 태권도의 날은 ‘9월 4일’이 법정기념일이다.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념일 제정 이유는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함이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WTF) 정기 총회에서 9월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태권도진흥 및 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다.〉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는 처음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WTF(세계 태권도 연맹) 총회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개최되었으며 그곳에서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제정하는데 의결하였다.

사실을 알고 이민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다음은 알립니다:

- ✓ 2014년 11월 20일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 제도의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러한 변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만, 사기를 피하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 ✓ 신청은 아직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발표에 근거하여 이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청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조심하십시오 - 그러한 제의는 이민 사기일 수 있습니다.
 - 무료 및 저렴한 상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기다리십시오
 - 2월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는 DACA 신청 및 5월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는 DAPA 신청
- ✓ 법적 조언을 구하시려면 유면허 변호사 또는 BIA가 인가한 대리인에게만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기 입국자에 대한 추방유예조치 또는 미국인 및 합법적 영주권자의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조치(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 DAPA)의 적용 대상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전화 617-635-4141번으로 보스턴 새터민 안내 라인에 전화하십시오.



신청은 아직 받지 않지만, 신청 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단계적 조치가 있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전화 617-635-4141번으로 보스턴 새터민 안내 라인 (New Bostonians Information Line)에 전화하십시오.

이러한 이민 관련 규정의 변경에 관한 안내 상담소의 목록을 원하시면, www.boston.gov/newbostonians로 당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Mayor's Office of
NEW BOSTONIANS

Martin J. Walsh, Mayor

시장 Martin J. Walsh와 보스턴 새터민 사무국에서 다음과 같은 미디어 후원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Sponsored by:

보스턴코리아

Brazilian Times
•COM

SAMPAN 一 舩 舩

THANG LONG
Tuân Sơn

بصوت العربي في أمريكا



ZARAH

EL MUNDO
BOSTON



EL PLANETA
MEDIA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Should be Complex’의 ‘거부당한 내면 아이’를 보듬어 주자! -좋은 습관은 행복으로 가는 직행선III-

세상은 내 귀로 직접 듣는 소리와 내 마음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서로 엉키어, 수많은 소리들을 만들고 있다. 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을 통해 쉴 새 없이 수만개의 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가르치려 하는 말, 틀렸다고 질책하는 말, 달콤한 말, 쓴 말, 유익한 말, 해가 되는 말, 여기저기 들리는 말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겹돌며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나 많으니,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다고 한다.

어쩌면, 겉으로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은 어릴적 부모님으로 주입받았던 무의식에 얽혀진 ‘반드시 ~이어야 한다(‘should be’ complex)’라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차단해주는 방어기제일 수 있다. 내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거부당한 내면 아이(John Brad Shaw: ‘Inner Child’, 1990)”의 상처를 가려주는 ‘자기 방어’를 말한다.

‘일 중독’이 점점 심해진다는 L씨가 테라피를 요청해왔다. 회사에서는 인기 있는 상사이고,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이고 아버지로 평생 일과 가정밖에 모르고 살아왔다고 했다. 오십년을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는 여유를 갖고 가족과 주말을 같이 즐기며 살고 싶은데,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진다고 했다. 테라피 치료를 통해서, 그분은 어릴적 수치심과 죄의식을 불러일으켰던 아버지의 ‘상처의 말들’을 듣기 시작했다. 깊은 내면에 50년 동안 지녀온 ‘거부당한 내면 아이’의 ‘감정의 상처’였다.

그의 형은 모든 것이 일들이었다. 그도 전교 10등 안에 드는 공부 잘하는 착한 모범생이었지만, 집에서는 항상 자신은 아버지의 ‘두번째 최고’였다. 아버지는 형의 성취와 자신을 비교하며, 확연히 들어난 형에 대한 편애를 당연시하게 했고,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은 항상 형이 먼저였다. 아버지는 마치 형에게 주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듯, 자신을 인정하곤 했다. 아버

지의 비교로부터 오는 ‘조장되어진 형에 대한 질투심’은 자신의 불완전한 성취에서 오는 수치감을 더욱 느끼게 했다. 형을 미워하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죄의식을 갖게 했다.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커져갔다. 그 결과, 중년이 된 그였지만, 살아가면서 그의 아버지의 말씀은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부당한 내면의 목소리(Inner Voice)’였다. ‘아버지의 사랑을 첫 번째로 받으려면 형처럼 똑똑해야 한다. 완벽하게 성취하여야 한다.’ 그의 아버지는 무언의 조건(Unspoken Deal)을 걸었다. ‘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가 싫어하는 너의 모든 면을 다 버리고, 철저히 내가 원하는 너가 되어야 한다. 방법은 단 두 가지다. 너를 버리든지, 나를 버리든지.’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두 번째 최고였고, 첫 번째 사랑을 거부당한 ‘거절당한 내면 아이의 소리’는 그의 가장 밑바닥의 마음 안에 자리 잡았다. 그는 크게 성공을 했다. 형에게 항상 밀리며 사랑을 거부당한 ‘수치감’과 형에 대한 질투심, 아버지를 충족시키지 못한 왜곡된 ‘죄의식’과 ‘죄책감’을 자신의 삶을 ‘최고’로 만드는 추진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형보다 더 크게 성공을 해도, 심지어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를 ‘두 번째 최고’로 취급하셨다. “왜 나는 끝내, 평생 갖고 싶었던 아버지의 ‘첫번째 최고’의 인정을 못 받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억누르며,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며 보내드렸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자신의 이익만을 철저히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되었고, 성공이 주는 ‘자기 도취’에 갇혀 빠져들며 자신의 상처를 방어했다. 끝까지 자신을 무시했던 아버지에게 ‘원망의 소리’를 자신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열망하는 다른 사람들의 ‘찬사의 소리’로 대치했다. 그러할수록, 그의 무의식

안에 있는 ‘거부당한 내면 아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게 했다(적대자의 투사적 동일시 Projective Identification). 이기적인 무관심을 ‘무심’이라 말씀하셨던 그의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배려심은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무관심을 ‘무심’이라 합리화했다. 능력별로 사랑하시던 아버지처럼, 자신도 능력이 있는 자식을 더 사랑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능력으로 자신의 이고를 키운 아버지처럼 자신도 이고리스트가 되었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게 해주어야만 사랑을 주었던 아버지의 조건적 사랑처럼, 자기의 이익에 맞추어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다. 자기 사업의 필요성에만 집중하는 단순하고 냉철했던 아버지를 점점 더 닮아갔다.

어렸을 때부터, ‘거부당한 내면 아이의 상처’를 철저히 안으로 숨기는 법을 익혔던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는 상대방을 진정히 배려하는 부드러움을 보일 줄 아는 그의 철저한 면을 갖게 했다. 내면 아이로 자라며 느낀 수치감과 죄의식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빨리 파악하게 했고, 사람들의 장단점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이 능력은 그에게 많은 성공을 가져왔다.

테라피를 통해, 그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한 자신이 ‘거부당한 내면 아이의 수치감과 분노를 토로하면서 그의 무의식 안에 자라고 있던, 자신의 ‘아픈 내면 아이’를 보았다. 사랑받고 싶은 내면 아이는 사랑을 거절당하는 아픔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아, 일 중독이 되어 일하는 성취로 사랑의 욕구를 대신하였다. 그는 말했다.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철저히 억압하며, 성공에 집착하며 살아갔던 이유가 거부당했던 내면의 아이로 수치감과 죄의식을 갖지 않으려 했던 나의 방어였군요”라

고.

그 안의 내면 아이의 수치감은 항상 그로 하여금 ‘완벽성’을 요구하며 살게 했고, 상처를 숨기려 더욱 완벽한 척 보이려 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기보다, 남이 어떻게 이야기 할까에 더 듣기를 집중하며 살아오게 했다. 자유롭게 자신의 숨겨진 진짜 취약점(Vulnerability)을 이야기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살아왔다. 그 누구든지 자신의 숨겨진 진짜 취약점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을 회피했고, 가치없이 수치감을 주어 잘라 버렸다. 자신의 취약점이 느껴지면, 실패하지 않으려 일에 과몰입했다. 실패하면,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사랑의 거부가 두려워 그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능력을 키웠다. 그는 ‘거부당한 내면의 아이’로 고착된 사랑법을 지니며 살아왔다. 테라피 치료 중, 그가 거부받은 내면 아이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의 자식들도 ‘거부받은 내면의 아이’들로 고착될 수 있고, 다음 세대로 ‘대물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놀라움을 표했다.

어릴 적 주입받았던 무의식에 얽혀진 내면 아이의 소리: ‘반드시 ~이어야만 한다(should be complex)’는 사랑을 ‘거부당한 내면 아이의 소리’다. 이 내면의 소리에는 단 두 가지의 사랑법을 요구한다. 요구를 들어준 만큼,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이지’ 못해 사랑을 거부당한 내면 아이의 상처를 귀 기울여 들어보자. 상처를 보듬으면서, 내면 아이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다. 실패를 해도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와 용기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삶이 재미있어진다. 단 두 가지의 사랑법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무한대의 사랑을 어울려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무한대의 사랑은 행복해질 수 있는 수만개의 선택을 선사해줄 것이다.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미국 최고의 언론지 TIMES 선정 2014년 베스트 발명품

연예인만 셀카?

아니아니~ 나도 셀카 찍고 싶어요!
혼자서 열쌍각도~ 찰칵! 연인끼리 놀러가서~ 찰칵!
친구들끼리 놀러가서~ 찰칵!



- 2015년 최신 셀카봉!
- 리모컨이 본체에 달려있는 버튼 일체형
- 싼 셀카봉 믿지 마세요!

최고급
스마트폰 글래스 스크린 프로텍터 Japanese Glass

특수 가공 유리 0.4mm의 두께로 얇고
간편하게 부착, 일반 필름보다 3배 강한 강도로
바닥에 떨어뜨려도 액정화면을 보호해 드립니다.

대리점 문의: 213.545.4334

최한가
\$29.99

구입 문의 **617-955-9112**

연말연시 최고의 선물용품
방송으로 소문 난 그 제품!
▶무한도전 ▶나혼자 산다 ▶꽃보다 청춘



경제 전문지가 운영하는 믿을 수 있는 홈쇼핑

Herald eMart

명품 공진단
경양산이 다시 구워주는 제품



精氣를 돈우고 氣와 血을 원활하게 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최고의 명약

名品 공진단

공진단은 사향, 녹용 등 최고의 약재를 엄선하고 동의보감 원처방의 정통(正統) 정향(正香) 그대로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31% \$800 → \$550 (102개)

37% \$1980 → \$1250 (30개)

소중한 분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이런 분들에게 명품 공진단을 추천합니다!

공진단의 효능

- 기혈보충
- 신진대사
- 면역기능
- 근육강화

세계가 인정하는 고품질 신아타 브라질산 명품

순도 100% 고품질, 항암치료, 헬리코박터 사멸!

현존하는 프로폴리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을 자랑하는

그린 프로폴리스

그린 프로폴리스란?
브라질에서도 미나스주에서 생성되는 깊은 정록색 액기스로 세계에서 오직 하나 뿐인 장인 기업에서 만들어진 화랑산, 희소성 가치를 지닌 제품입니다.

Artepillin-C
강력한 항암작용 체계로 최근 일본 국립예방연구원이 마르노데스아 박사에 의해 최초로 발견된 물질로써 오직 그린 프로폴리스에만 있는 성분입니다.

효과 및 기능

- 위암, 폐암, 위양성, 위산과다, 만성위염) 특효
- 알러지 비염, 축농증, 인후염, 인후통, 인후염
- 면역기능 강화(SOD 효소 다량 함유)
- 진통, 저혈, 전립선, 자궁경부 계통 질환
- 박테리아, 바이러스 멸균

기관지염, 편도선, 천식, 무좀, 각종 피부질환 아토피, 여드름, 지질, 강한 항암작용(Artepillin-C), 각종 종양 제거, 당뇨, 간질환, 골다공증, 동맥경화, 박테리아, 바이러스 멸균

21% \$100 → \$79

대한민국 원도의 청정바다가 준 선물

해림후코이단

한국정부의 해양바이오 사업으로 탄생한 '해림 후코이단' 미국상륙!

방사능 오염에 걱정없는 원도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해림후코이단을 만나보세요

후코 플러스 세븐베리즈 (80ml x 30팩)	프리미엄 후코아셀 (690ml)	후코이단 에코 (50ml x 30팩)
고품질 후코이단과 아로니아, 블랙커런트, 블루베리, 라즈베리, 스트로베리, 크랜베리, 아사이베리 등 7가지 베리가 배합된 제품	후코이단은 물론 또 다른 항암 물질 후 코산틴과 카큐민까지 첨가한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후코이단에 미네랄을 넣어 그 기능을 더욱 배가 되어 맛 좋은 제품입니다.
\$249	\$399	\$199

닭아내는 올인원실팩!
연예인 청담금실팩!

10in1

팩 하나로~ 싹!

당겨주고, 채워주고!
피부 겉과 속을
한 번에 케어해주는

ALL KILL

금실 리프팅팩

전속모델 오연서

20% \$99 → \$79

[에어 프라이어]

Air Fryer

기름없이 공기로 튀기는 건강한 튀김기

기름 없이 튀김 요리하는 건강한 튀김기. 기름 없이 튀김 요리하는 건강한 튀김기. 기름 없이 튀김 요리하는 건강한 튀김기.

40% \$315.95 → \$189.95



LG 놀이방 매트



- “아이가 좋아하는, 유익한 디자인”
명품 캐릭터, 다양한 학습놀이
- “자세히 볼수록 빠져드는 놀이방매트”
안전과 편안함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 “아이가 쓰는 제품 청결이 제일이지요”
쉽고, 편리하게 물걸레 하나로 OK
- “매트 위에 넘어져도 안심인 이유?”
LG하우시스만의 탁월한 쿠션감

 프라임 고급중형 뽀로로 여행 130x190x1.5cm 11% \$179.99 → \$159.99	 프라임 중형 뽀로로 기차놀이 130x190x1.1cm 13% \$149.99 → \$129.99
 1등급 놀이방 뽀로로 렛츠고 210x140x1.8cm 11% \$279.99 → \$249.99	 아소방매트 210x140x1.8cm 11% \$279.99 → \$249.99
 고급초대형 놀이방매트 230x140x1.5cm 9% \$219.99 → \$199.99	 프라임 고급초대형 뽀로로 친구들 250x140x1.5cm 9% \$219.99 → \$199.99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71)

2015년 주식시장과 마음가짐

새해가 시작된 지 엿그제 같은 데 어느새 2월입니다. 이처럼 이민 세월은 더욱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2014년 주식시장을 간단히 뒤 돌아보며 투자자로서 2015년에 필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2014년에는 S&P 500 인덱스 수익률이 13.7%를 기록했습니다. 작은 회사의 수익률은 4.9%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섹터, 신흥국가(emerging market), 유럽을 비롯한 외국 회사(international stocks), 에너지(energy), 커머디티(commodity), 금(gold), 등의 투자는 하락했습니다.

S&P 500 인덱스는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500개 회사를 말합니다. 수익률 13.7%는 500개 회사의 평균 주식 수익률을 말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53번이나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난 3년 연속 10% 이상 수익률도 기록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기록은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30개 회사로 구성된 다우 존슨(Dow Jones)의 수익률은 10%로 마감되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돌아보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어느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어야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연말에 가서 어느 섹터가 상승하고 어느 종목이 하락할지를 정확히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투자자의 마음은 상반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주식시장에선 현금을 보유했으면 하고 상승하는 시장에선 자산 전부를 투자했으면 합니다. 욕심과 두려운 마음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조절할 수 없기에 일반 투자자는 실패하는 투자를 반복합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투자해서 받을 수 있는 수익보다 투자 위험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2008

년 금융위기 때 S&P 500은 40%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주식시장을 참고해 보면 작년에 큰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식시장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투자자로서 꾸준히 수익을 받는 것이 제대로 하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분산투자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큰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것보다 수익률이 적을 수뿐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말할 때는 얼마의 투자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위험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먼저 잃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100 투자가 50% 하락하면 \$50이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50%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은 \$75뿐이 되지 않습니다. 원금 \$100

이 되기 위해서는 100% 상승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익보다 위험성을 먼저 고려한 포트폴리오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2015년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의 이익은 최고치에 달합니다. 현재 500대 기업은 현금으로 \$2 trillion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단 5.6%로 금융위기 후 최저점입니다. 자동차도 16.4 million이 팔렸습니다.

불안한 요소도 물론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예측입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반듯이 내려갑니다. 일반적으로 1% 이자율 상승에 10년 만기 채권 가격은 7% 하락합니다. 이자율이 몇 퍼센트 상승할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자율의 상승은 은퇴자금을 보전하고 생활비가 필요한 은퇴자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수익비율(Price to Earnings)도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주가수익비율은 특정 주식의 주당 가격을 주당이익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과거 평균 비율은 15.53이지만 현재는 19.96입니다. 현재 주가가격이 과거의 가격보다 비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6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시장이 언제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시장의 변화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단 2주 동안 S&P 500가 3% 상승했습니다. 2주 동안 내 돈이 주식시장에 없었다면 이러한 수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할 것입니다. 제대로 설정된 자산분배와 분산투자로서 형성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운용하는 더욱더 중요한 2015년이 될 것입니다.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4)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이번주는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냈는데, 미국에 또 세금을 낸다면 세금을 두 번 내는 셈입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소득에 대해 외국에 세금을 냈으면, 미국에 세금을 낼 때는 외국에 낸 세금을 차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000을 벌어서 세금 \$300을 납부한 경우,

1) 한국의 소득 \$1,000에 대한 미국의 세금이 \$350이면, 미국에 실제 납부할 세금은 \$50(미국의 세금 \$350에서 한국에 낸 세금 \$300을 차감한 금액)이고,

2) \$1,000에 대한 미국의 세금이 \$250이라면, 이미 한국에서 \$300을 냈으므로 미국에 낼 세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그런데 두 번째 경우와 같이 한국에 \$300을 냈는데 미국에서 \$250만 공제해 주면 \$50은 공제를 못 받게 되는데, 이런경우는 그 금액을 1년전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직전 사업연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를 받고(1년 소급공제 :carryback), 그럼에도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10년에 걸쳐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10년 이월공제: carryover)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그런데 외국에 낸 세금이라 하여 모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income)’, 예를들면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에 대한 세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닌 세금, 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real estate tax)나 동산(personal property)에 대한 세금 등은 이 규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의 세금계산 시 외국의 소득(income)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소득(income)에 대해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의 세금계산시 항목별공제를 적용할 수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항목별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Foreign Earned In-

come Exclusion

지난 주에 살펴봤듯이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bona fide resident test/330 days test)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규정에 의해 외국의 EARNED INCOME 중 최대 \$99,200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봤듯이 외국의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요건을 갖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을 수도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소득에 대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물론 EARNED INCOME이 \$99,200을 초과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지 못한 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그렇다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Foreign Earned In-

come Exclusion은 납세자가 원하면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납세자가 원치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던 납세자가 이를 취소하면, 향후 5년 내는 다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받기 전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존에 이 규정을 적용받던 사람이 이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향후 5년내에 다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MA 주정부 세금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없어

다른 주(state)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른 주에 낸 세금은 MA 주정부 세금 계산시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은 MA주의 세금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또한 MA주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지만 MA주의 거주자로 판정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낸 소득에 대해 MA주 정부 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TV는 사랑을 싣고

발렌타인데이 특별 할인 !

무제한 시청 월 \$ 29.99
2월 28일까지(2년 약정시)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KBS

MBC

SBS

SBS Plus

tvN

XTM

STORY
ON

On Style

Mnet

Olive

OCN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세인트 앤스 벨필드 스쿨 1
(St. Anne's-Belfield School: SABS)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세인트 앤스 벨필드(St. Anne's-Belfield)는 버지니아 대학교 측이 남학생들에게 제공하던 우수한 아카데미 기회들을 여학생들에게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856년에 The Albemarle Female Institute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초기의 설립 목적을 부활시키기 위해 1910년 미국 성공회 교구 책임자인 헨리 리(Henry Lee)목사가 교구 회원들에게 학교를 구입하도록 허락하면서 세인트 앤스 학교(St. Anne's School)로 교명을 바꾸었다. 그 후 1956년 설립된 벨필드 학교(Belfield School)와 1975년에 합병되면서 학교의 규모, 아카데미 기준, 교외활동, 다양성 등을 갖추고 더욱 발전한 학교다. 현재 유치원 이전 과정부터 12학년까지 있는 학교 체제로 보딩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로 데이 학생들이 훨씬 많이 재학하고 있는, 데이 학교 시스템을 갖춘 보딩 학교이다. 현재 보딩 학생들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약 65명 정도고 데이 학생들은 약 813명 정도가 재학 중에 있다.

세인트 앤스 벨필드는 매주 채플 서비스, 다양한 경쟁적인 스포츠와 아트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봉사활동을 학생들이 해야 하며

보딩의 경우 5일과 7일 보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학교다. 아카데미 부분은 데이 학생들이 많은 관계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준이 높은, 미동북부 지역에는 널리 알려진 학교는 아니지만 버지니아 주 샬로츠빌에 위치한 우수한 학교 중 하나다.

아카데미 프로그램

한 반 평균 학생 수는 약 14명 정도고 선생님들의 평균 이 학교 재직 연수는 약 10년 정도로 선생님들의 교수법은 아주 뛰어나며 학생들을 교실 안팎에서 지도하는 수준이 매우 높다고 정평이 난 학교이다. 선생님들 중 약 80%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고, 15개의 AP코스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다. 수업은 토론과 강의 위주의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학교 내 7개의 전문 학과(영어, 수학, 역사, 외국어, 과학, 아트, 체육)들로 분류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학년과 수준에 맞는 적절한 코스를 선택할 수 있게 어드바이저가 가이드를 해주며 동시에 도전적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있다.

신입생으로 입학한 학생을 기준으로 졸업 필수 수강 과목들로는 영어(4년), 수학 (알지

브라 2), 외국어 (동일어 레벨 3), 과학(생물, 화학, 물리), 미술(1년), 신입생 라이프 스킬(Freshmen Life Skills), 봉사활동(60시간), 체육, 시니어 세미나를 수강해야 졸업할 수 있다.

1. 휴머니티: 영어 9-12, 세계사 9-10, 미국사, 유럽사
2. 수 학 : Integrated Math 1-2, Trigonometry, Pre-calculus, AP Calculus, AP Statistics, Linear Algebra, Calculus: Single Variable
3. 외국어: 불어 1-5, AP 불어, 스페인어 1-5, AP 스페인어, 라틴어 1-3, AP 라틴어
4. 과학: 화학, 물리, 생물 그리고 각각의 AP 과목
5. 음악과 연극: Concert Choir, Vocal Ensemble, Philharmonic Orchestra, Wind Ensemble, Counterpoints, Foundation of music, AP Music Theory, Theatre Art 1-2
6. 미술: Art Construction, Drawing and Design, Painting, Ceramic, Photography, Visual Documentary등의 코스가 제공되고 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과학 코스와 역사 코스가 다양하지 못하고 외국어 과목에서도 중국어 과목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과학 과목에 있어서 타 학교들과 달리 생물, 화학, 물리과목 모두를 수강해야 한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학교의 아카데미 시스템은 1년 3학기제로 매학기 학점과 평가서를 받아 볼 수가 있다.

스포츠

많은 팀 스포츠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중목들이 경쟁적이고 학생들이 Varsity레벨까지 도달하기가 무척 힘들다. 매 시즌별 운동 종목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을: 미식 축구, 남자 축구, 크로스 컨트리, 하키, 여자 테니스, 배구

겨울: 농구, 스쿼시, 수영, 다이빙

봄: 야구, 라크로스, 남자 테니스, 소프트볼, 여자 축구, 골프 등의 스포츠 종목이 있다.

여학생들의 경우는 League of Independent Schools(LIS) 그리고 남학생들은 Virginia Prep League(VPL)에 소속되어 타 학교들과 매주 두번씩 시합을 하고 있다.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최근 어느 한 기자분과 한국의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요즘 들어서 한국 대학에서도 수능 점수와 내신 등급만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고, 여러 입시 전형을 통해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학생을 뽑는 추세에 대한 대화였다. 결론은, 아직까지는 한국의 입학 사정관제에는 고칠 점이 많다는 것이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대학에서는 교내에서 받은 상이나 활동만을 학생의 평가에 반영하고, 교외 혹은 나라 밖에서의 활동은 원서에 표기하지 않도록 되어있다는 식이다. 교내 활동은 물론, 학교 외의 지역 사회 활동 그리고 인턴십이나 캠프를 포함한 여름방학 활동까지 모두 과외 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미국의 대학과 비하면 한국은 아직 진정한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걸맞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었다.

미국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그 학부모들이라면 과외 활동의 중요성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명문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선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별한 장점이 있어야 하는데, 과외 활동은 학생의 열정과 관심사, 봉사정신까지 모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 수학이나 과학 경시대회에서 성과를 거둔다거나, 예술 계통에서 명성을 떨쳐도 좋다. 하지만 단순히 이력서에 몇 줄 추가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의 활동이 아닌, 스스로가 정한 목표를 위한 헌신, 리더십 위치에서의 추진력,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 등을 통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특히, 대학의 전공 선택에 연관 지어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인과 관계를 보여준다면 입학 사정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원서와 이력서에 명시할 수 있는 과외 활동은 크게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 여름방학 활동의 3분류로 나눌 수 있다. 각기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이미지를 구축할 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고학년으로 진학하면서 들을 교과목을 선택하거나, SAT 시험 응시 계획을 짜듯이 일종의 전략을 짜는 것이다. 대학교 측에서 학생의 과외활동을 평가할 때 가장 쉽게 열정을 재는 지표로 일관성을 많이 본다. 즉, 고등학교 4년 내내 일관성 있게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 뒤야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잘 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열정을 보일 수 있다. 특히, 11학년,

과외 활동의 중요성

12학년에 올라가면서는 어느 정도 리더십도 보여줘야 하는데,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특히 아이비리그 등의 명문 대학교에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사회(communitiy)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었나를 많이 보게 된다. 이는 학생의 열정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성 평가까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 사립 보딩스쿨과 공립 고등학교를 모두 거치며 중간에 전학을 했기 때문에 4년 내내 같은 교내 동아리에 소속될 수가 없었다. 게다가 학업적인 측면에서 우수함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AP 과목을 총 10과목을 들으며 내신관리를 했기 때문에 교외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동양계 학생들이 자주 장점으로 내세우는 음악 활동에서 보여줄 만한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차별화 될 수 있는 다른 장점이 필요했다. 다행히도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시작한 봉사활동 이력이 있었다. 학교 근교의 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보드 게임을 통해 수학적 사고와 논리력을 키워주는 동아리였는데, 공립학교로 전학을 오면서 비슷한 성격의 봉사 활동 동아리를 창립하면서 활동의 일관성과 리더십을 동시에 잡을 수 있었다. 11학년, 12학년 때는 주말마다 학교 근처 미대인 아트센터 디자인 학교(Art Center College of Design)에

서 제품 디자인, 광고 기획, 환경 설계 등의 수업을 들었다. 대학은 기계 공학 전공으로 지원했지만 미술, 디자인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이과 계통 전공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도 하는 감성적 사고 방식의 부재를 충분히 극복하고 대학 졸업 후에도 성공적인 제품을 설계, 생산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원서 속에서 보여줄 수 있었다.

어느 분야의 과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정답은 따로 없다. 학생마다 주어진 상황도 다르고, 대학교에서도 요구하는 과외 활동에 공식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다. 우선 열정을 보여야 한다. 대학교도 공부'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공부'도'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열정, 인내, 리더십, 봉사 정신 등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에서 꾸준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자신만의 장점을 연마해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 때, 미래의 꿈이나 대학교 전공 등과 연결시키면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외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a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pospay24.com



worldpay

ProS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노퍽 새 기계, 새 셔츠유닛, 부유한 동네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소유자 32년만에 은퇴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39,000

동양 그로서리, 연매상 \$415,000 다운타운 보스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가격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훌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미 프로그램

SAT 1, 2/AP 수업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중심 수업
상시 참여및 주말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개인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3,4월 Spring Break 프로그램

• 사립학교 학생을 위한 SAT I 준비반
기간 : 3.7(토)~3.21(토)

• 공립학교 학생을 위한 SAT I 준비반
기간 : 4.18(토)~ 4.26(일)

• SAT I Class

*주말 SAT 1 Class와 같은 시간구성
*5.02, 6.06일 SAT 시험대비 집중반

• SAT II Subjects Classes

-Math II C, Bio, Phycisc,Chemistry
-그룹및 개인지도 가능
-Skype수업가능

2015 주말 프로그램

• SAT I Class:

9:00-12:00 실전문제 풀이
12:00-1:00 점심, vocabulary test
1:00-4:00 수업(critical reading, writing)
4:00-5:00 실전문제 풀이

• Writing Class

*현직 영어교사 강의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4~5학년:10:00-12:00(토)
*6~8학년:12:00-2:00(토)

• AP 및 SAT II subject test 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인수업 가능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